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분단 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 마르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수호』 연구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 전공
조 광 민

분단 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 마르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수호』 연구 -

지도교수 정 항 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 전공

조 광 민

조광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년시절의 수호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의 주인공이 겪는 정체성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독일사가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종속성과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독립적 존재방식을 확보하려는 정체성이라는 양극단의 갈등관계를 다루기 시작한 발저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와 같은 개인-사회갈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분단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민족적 현실을 다룬다. 특히 그는 ‘2차 세계대전’, ‘나치과거사’, ‘분단’ 그리고 ‘통일’을 집단으로서의 독일민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개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 양자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발저는 독일의 분단은 독일을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요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징계로서 분단현실을 받아들이는 일부 좌파지식인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분단인식을 바탕으로 분단으로 인한 각종 정치·사회·문화적 문제점의 극복수단으로서 통일이 지니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나치정권시기에 자행된 유대인 학대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반성과 동시에 순수한 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개인적 차원의 반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민족 또한 전쟁이라는 비극의 희생자임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년시절의 수호』에는 위와 같은 발저의 창작 성향과 역사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1991년 출판됨과 동시에 ‘역사적 전환기를 다룬 위대한 독일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장편 소설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앞서 언급된 ‘2차 세계대전’, ‘나치 과거사’,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현대 독일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발저 자신의

견해, 나아가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위와 같은 민족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민족적 현실은 한 개인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발저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은 정체성이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에 있어 전쟁과 분단과 같은 민족적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체성의 장애요소가 극복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앞서 언급된 독일의 현대사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였으며, 1953년 휴전된 이후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북한과 군사적 대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쟁과 분단의 상처는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민족적 현실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를 겪는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유년시절의 수호』에 대한 연구는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정신교육자료로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마르틴 발저, 분단, 통일, 정체성, 민족, 개인

학 번 : 2011 - 22791

목 차

서론	1
1. 발저의 작가적 발전단계	1
2. 연구사 및 연구방향	6
I. 고향상실과 유년기로의 퇴행	10
1. 유년시절 상실로서의 고향상실	10
2. 유년기에의 고착	16
II. 정체성의 혼란	24
1. 비정상적인 성정체성	24
2. 정착의 실패와 이방인의 삶	30
III. 정체성 확립시도와 그 한계	37
1. 유년시절의 재구성	37
2. 현실도피와 대체현실 추구	48
2.1. 현실 보상과 도피수단으로서의 예술	48
2.2. 대체현실 추구를 통한 결핍 보상 시도와 그 실패	51
IV.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회복	59
1. 민족적 현실과 개인	59
2. 통일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	70
결론	77
참고문헌	79
Zusammenfassung	84

서론

1. 발저의 작가적 발전단계

1924년 독일 바서부르크에서 태어난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 는 튀빙엔대학에서 문학과 역사학,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1951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카프카에 대한 논문으로 독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부터 신문과 잡지, 라디오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그는 1953년 47그룹에 초청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55년에 발표한 첫 단편모음집 『지붕 위의 비행기 Ein Flugzeug über dem Haus』에 수록된 단편 소설 「템플로네씨의 최후 Templones Ende」로 그 해에 47그룹상을 수상하면서 독일 문단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고 이후 소설, 수필, 연극대본, 시, 방송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발저의 초기 작품에는 카프카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템플로네씨의 최후」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삶의 부조리를 다룬다는 점과 소설 속 인물들이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닌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체념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띠는 점에서 나타난다.¹⁾ 이후 그는 소시민상을 표현하는 ‘카프카적’ 작품성향에서 벗어나 사회비판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성향의 작품들을 연달아 출간한다. 대표적인 예로 『검은 백조 Der schwarzen Schwan』(1964)와 『참나무와 앙고라토끼 Eiche und Angora』(1962)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나치시대 소시민의 정치적 동조행위와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대해 비판하였다. 발저는 이와 같은 사회비판적, 사회참여적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의 창작 외에도 독일사회민주당(SPD)에 참여하는가하면 대

1) Vgl. Andreas Meier: Martin Walser: Templones Ende. In: Klassische deutsche Kurzgeschichten. Stuttgart 2004, S. 186f.

연정 Große Koalition²⁾ 이후에는 급진적 좌파성향의 독일공산당 (DKP)에서 활동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³⁾

위와 같은 발저의 사회참여적 성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사회의 급격한 보수화와 함께 변하게 된다. 당시 서독사회는 학생운동에서 시작된 사회변혁운동이 실패한 이후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띠게 된다. 발저를 포함한 당시 서독의 많은 작가들 또한 이러한 ‘경향 전환 Tendenzwende’⁴⁾을 하는데, 특히 그는 1974년 독일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작가는 글을 쓰면서 변화하는 사람이다”⁵⁾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사회 참여적 문학기조로부터 자기표현 Selbstöffnung과 자기성찰 Selbstreflexion의 성향을 띤 신주관주의 Neue Subjektivität로 돌아선다.⁶⁾ 하지만 그의 작품이 이러한 “마르틴 발저의 운명에 있어서 명확한 전환점”⁷⁾을 기점으로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 세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는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후 자신이 문학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밝힌다. 그는 리얼리즘적 작가는 한 개인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조건들과 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서술함에 있어 특정한 목표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역사에 대한 필요를 무의식적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주

-
- 2) 1966년 SPD가 정권을 잡기 위해 보수정당인 CDU 및 CSU와 정치적으로 연합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서독은 베트남전에 관한 정책결정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 3) 또한 발저는 1970년대 초반에는 유럽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노동자 문화사업회 Arbeitskreis Kulturindustrie’를 결성하는가하면 1973년 그의 논문집 『문학의 대상과 방법 Wie und wovon handelt Literatur?』에서는 사회적 현실변혁을 위해서 작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변혁에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Vgl. Martin Walser: Wie und wovon handelt die Literatur? : Aufsätze und Reden. Frankfurt a.M. 1973, S. 136: “Wenn der Autor die Arbeit des Schreibens nicht zur eigenen Veränderung braucht, dann wird er auch keinen verändern.”
 - 4) Peter Beiken: Neue Subjektivität. Zur Prosa der sechziger Jahre. In: Paul Michel Lützer und Egon Schwarz (Hrsg.): Deutsche Literatur in der BRD seit 1965. Königstein im Taunus 1980, S. 164.
 - 5) Walser: Wer ist ein Schriftsteller?. In: Wer ist ein Schriftsteller? Aufsätze und Reden. Frankfurt a.M. 1979, S. 42: “wer sich schreibend verändert, ist ein Schriftsteller.”
 - 6) Vgl. Heulmut Kreuzer: Neue Subjektivität. Zur Literatur der siebziger Jahre im der BRD. In: Manfred Durzak (Hrsg.): Deutsche Gegenwartsliteratur. Stuttgart 1981, S. 78f.
 - 7) Anthony Edward Waive: Martin Walser. In: Keith Bullivant (Hrsg.): After the ‘Death of Literatur’. Oxford 1989, S. 32: “a clear turning point in Martin Walsers fortunes”

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변혁이라는 목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지난 60년대의 참여문학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197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사랑의 저편 Jeneseits der Liebe』에서 호른이라는 평범한 영업회사원이 직업사회의 경쟁체제 속에서 좌절하고 가정파괴를 겪으면서 자기소외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사회현상 묘사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창작성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적인 자아의 묘사를 추구한다.⁸⁾ 1978년에 발표된 『도망치는 말 Ein fliehendes Pferd』 또한 개인적인 주제와 사회적인 주제를 매우 잘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등⁹⁾ 7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소설에서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종속성과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독립적 존재방식을 확보하려는 정체성이라는 양극단의 갈등관계가 주를 이루게 된다.¹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발저는 위와 같은 개인-사회갈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분단이라는 독일의 민족적 현실을 다룬다. 이미 「독일이라는 모자이크 Ein deutsches Mosaik」(1963)에서 민족과 분단 문제에 대해 성찰한 바 있는 그는 1987년에 독일분단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소설 『도르레와 볼프 Dorle und Wolf』를 발표한다. 이 작품에서 발저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독일통일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볼프 치거라는 동독 스파이의 삶을 묘사하면서 분단

8) 고성현: Martin Walser의 『Ein fliehendes Pferd』에 나타난 소시민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4쪽 참조. 이러한 그의 창작성향은 『자의식과 아이러니』에 나타난 소설의 정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모든 소설은 자의식의 이야기이다. 모든 소설은 작가가 그 소설을 쓰는 시대에 자의식이 어떻게 쟁취되는지, 방어되는지 혹은 허구화되어야 했는지를 서술한다. Jeder Roman ist die Geschichte eines Selbstbewußtseins. Jeder Roman erzählt, wie zu der Zeit, als der Autor diesen Roman schrieb, Selbstbewußtsein erkämpft oder verteidigt oder fingiert werden mußte.” Walser: Selbstbewußtsein und Ironie. Frankfurt a.M. 1981, S. 155.

9) Vgl. Alexander Mathäs: Der kalte Kriege in der deutschen Literaturkritik. Der Fall Martin Walser. New York. 1992, S. 123.

10) 최재용: M. Walser 소설의 인물 및 모티프 연구 - 70년대 후반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2쪽 참조. 지블레브슈키는 이러한 발저의 글쓰기를 고통을 야기하는 삶의 여건들과 체험들에 대한 개인적 반응형식이라고 평가하였다. Klaus Siblewski: Martin Walser. In: Heinz Ludwig (Hrsg.): Kritisches Lexikon zu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München 1992, S. 2.

현실에서 한 개인이 강요받는 정체성의 혼란을 언급한다. 그는 이듬해인 1988년, 「독일에 대해 말하다 Über Deutschland reden」라는 연설에서 독일분단은 인정할 수 없는, 강요받은 것임을 주장하며 분단을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유대인학살과 같은 대학살에 대한 마땅한 징계로 받아들이며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좌파지식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한다.¹¹⁾

1990년 독일통일 후 발저는 나치시대 독일민족의 과거사 수용문제 그리고 이를 도구화하려는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을 문학적 소재로 다루기 시작한다. 그는 나치과거사 수용과 관련하여 독일민족이 무조건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적, 물질, 정신적 피해의 가해자로 취급받는 견해에 반대한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1998년에 발표한 소설 『숫구치는 샘 Ein springender Brunnen』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치에 동조하게 되는 독일 소시민의 삶과 전쟁과정에서 독일민족이 겪는 희생을 묘사함으로써 독일민족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임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작품으로 수상하게 된 독일출판협회 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학살로 대표되는 나치시대 독일민족의 어두운 과거를 도구화하는 언론매체들을 비판한다.¹²⁾ 이러한 발저의 매체비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일반화 된다. 그는 200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어느 비평가의 죽음 Tod eines Kritikers』에서 독일 문학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비평가의 죽음(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다룸으로써 문학비평을 통한 권력행사와 이를 조장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비판한다.¹³⁾

11) Vgl. Walser: Über Deutschland reden. In: ders.: Deutsche Sorgen. Frankfurt a.M. 1997, S. 411-412.

12) 이에 대해 유대인협회 회장 이그나츠 부비스 Ignaz Bubis는 그를 ‘정신의 방화범 geistiger Brandstifter’ 이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고 이후 ‘발저-부비스 논쟁 Walser-Bubis-Debatte’로 표현되는 발저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정향균: 마르틴 발저의 『숫구치는 샘 Ein springender Brunnen』에 나타난 “순수한 기억”과 “양심의 자유” 문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21집(2003), 175-197쪽.

발저는 위와 같은 작가적 발전단계를 보이며 전후(戰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대 독일 사회의 많은 쟁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그의 리얼리즘에 대한 견해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가 문학작품을 통해 전후 독일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에 공감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문학세계는 당대 사회를 비추는 현상학적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Vgl. Leo Kreutzer: Ein Roman und sein Doppelgänger. Sieben Anmerkungen zu Tod eines Kritikers. In: Dieter Borchmeyer u. Helmuth Kiesel (Hrsg.): Der Ernstfall. Martin Walsers "Tod eines Kritikers". Hamburg 2003, S. 211 u. Rainer Wimmer: Auf die sprachlichen Formen achten!, S. 257.

2. 연구사 및 연구방향

발저에 대한 연구는 위와 같은 그의 작가적 발전단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바우징어 Hermann Bausinger와 베커만 Thomas Beckermann은 발저의 작품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측면을 연구하였고, 보르트만 Elmar Wortmann과 브라운가르트 Wolfgang Braungart는 주인공의 소시민성에 주목하여 그의 창작 초기에서 80년대의 작품을 연구하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연구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색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야블코프스카 Joanna Jablkowska와 피에타 Silvio Vietta는 발저의 고향, 민족개념에 주목하여 분단관, 통일관에 드러난 발저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발저문학의 연구단계에서 독일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던 1988년 초여름에 집필되기 시작하여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1991년에 출판된 『유년시절의 수호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는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20세기 독일사회가 겪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민족적 차원의 사회상황으로 인해 정체성 확립을 방해받는 알프레트 도른이라는 한 개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 소설에 대해 스크바라 Erich Wolfgang Skwara는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엄밀성, 시적인 강조, 백과사전적인 역사지식 그리고 지역지식”¹⁴⁾을 다룸으로써 위대한 시대소설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문학과 현실의 결합이야말로 이 작품이 독일 사회에 감명을 주는 이유라고 말하였다.¹⁵⁾ 또한 코플린 Wolfgang Kopplin은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를 통해 독일 민족 전체의 역사가 실감나게 표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유년시절의 수호』의 기존의 연구 또한 이러한

14) Erich Wolfgang Skwara: Ein Parzival-Roman der deutschen Teilung. In: Heike Doane u. Gertrud Bauer Pickar (Hrsg.): Leseerfahrungen mit Martin Walser. Neue Beiträge zu seinen Texten. München 1995, S. 190: “schwindelerregende Präzision [...] dichterische Emphase, enzyklopädische Geschichts- und Regionalwissen”

15) Vgl. Skwara: Ein Parzival-Roman der deutschen Teilung, S. 192-194.

평가의 범위 안에서 작품 내적인 의미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테스-플로흐 Nadja Anthes-Ploch와 페츠 Gerald A. Fetz는 문학과 사회·정치의 상호영향관계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분단현실로 인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였고, 라인홀트 Ursula Reinhold는 작품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주인공이 겪게 되는 정체성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마테스 Alexander Mathäs는 앞서 말한 두 연구와 같이 주인공의 정체성문제에 주목하면서도 발저의 창작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시민성에 대한 묘사’에 연구중점을 두었다. 그는 발저가 20세기 중·후반 독일의 사회 현상을 서술하는 관점에 주목하여 주인공이 사회현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⁶⁾ 이 작품을 번역한 권선형은 알라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n의 문화적 기억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억과 보존행위에 주목하였는가 하면,¹⁷⁾ 다른 한편으로는 발저의 역사관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전후 독일사회와 통일독일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연구하였다.¹⁸⁾ 정향균은 발저의 주된 창작동기의 하나인 ‘결핍의 체험’¹⁹⁾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발저의 역사관과 통일관을 분석하였다.²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주인공이 겪는 정체

16) 이는 발저에 대한 국내연구가 주로 그의 70년대 작품에 나타난 소시민성에 대한 분석과 90년대 후반 이후의 각종 연설문이나 에세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7) 자세한 내용은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 마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정체성』 고찰.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27집 2005, 121-140쪽을 참조하십시오.

18) 자세한 내용은 권선형: 마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정체성』에 나타난 전후 독일사회의 조망과 통일독일의 미래상.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회 제81집(2002), 130-147쪽을 참조하십시오.

19) Vgl. Georg Braungart: “Ich habe nicht das Gefühl, daß ich mich bewegt hätte.” Martin Walsers ‘Wende’ zwischen Heimatkunde und Gesichtsgefühl.” In: Walter Erhart und Dirk Niefanger (Hrsg.): Zwei Wendezeiten. Blicke auf die deutsche Literatur 1945 und 1989. Tübingen 1997, S. 95-96.

20) 자세한 내용은 정향균: 결핍의 미학.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0호(2008), 89-117쪽을 참조하십시오.

성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 한 후, 나아가 작가가 정체성문제를 소설화한 궁극적인 동기를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연관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주인공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인 고향상실과 이로 인한 유년기에의 고착을 살펴본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알프레트 도른은 그의 일생동안 총 세 번에 걸친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특히 그는 유년시절에 최초의 고향상실을 경험함으로써 더 이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유년시절에 고착되어 다양한 유아적 특성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알프레트 도른은 ‘정체성을 지닌 성인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의존해온 어머니에게 성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집착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교제를 포함하여 성(性)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어느 공간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채 주변 사회에의 편입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 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주인공의 비정상적인 측면들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위와 같은 비정상성을 보이는 주인공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과거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고, 법률 공부 때문에 억눌러 왔던 예술성을 발휘하며,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결핍될 위기에 놓인)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정체성 확립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주인공의 정체성 확립시도가 실패하게 되

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분단현실에서 나타난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묘사함으로써 독일통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본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인공의 다양한 시도는 전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중·후반 독일민족이 겪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분단현실의 개선이자,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유년시절의 수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비정상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사의 측면에서가 아닌,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다루어질 때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저의 문학세계에서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황 및 사회현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I. 고향상실과 유년기로의 퇴행

1. 유년시절 상실로서의 고향상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장소(공간)’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행위의 주체로서 지니는 물리적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思考)행위를 할 때에도, 가시적인 신체활동을 할 때에도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과 장소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인간존재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죽는다. 인간은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감동적인 경험을 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장소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장소를 특별하게 인식한다.

인간은 이러한 의미부여를 통해 장소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의 근원이자,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으로 여기게 된다.²¹⁾ 인간은 장소라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겪는 이와 같은 심층적 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원천, 즉 뿌리의식을 형성한다. 한 개인과 그가 유년기를 보낸 고향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고향은 한 개인(또는 고향이 같다는 공통점을 지닌 ‘개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우리)의 ‘어떤 경계 지어진 고유한 공

21)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의 본질은 그것이 인간 존재의 심층적인 중심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렐프(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4쪽 참조. 이러한 장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클러백과 와일드는 「장소의 존재론적 탐구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장소’는 존재의 계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인간을 위치시킨다. 인간은 두 가지 방식, 곧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에서 장소와 연관된다.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수직적으로 인간은 존재의 독특성을 은닉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존재의 거소가 된다.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의 자유와 실존적 현실의 깊이를 정한다.” William Kluback and Wilde Jean T: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In: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1958, S. 19. 신문수: 장소·인간·생태적 삶. 실린 곳: 문학과 환경 제6권(2007), 60쪽에서 재인용.

간'으로서, 그 사람을 타자와 타자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²²⁾ 다시 말해 인간은 고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 자기를 정립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은 한 개인의 과거, 그 중에서도 유년시절과 연관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우선 유년시절과 고향이 한 개인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 과거를 형성하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이라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은 조부모와 부모, 어린 시절의 친구, 자연 풍경 및 풍물과 같은 실제 사물들 그리고 그들(혹은 그것들)과 함께 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체성 형성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년시절의 정체성 형성에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한편 이러한 것들은 거주자들을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추위에서 보호해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집'이라는 공간을 주요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로우며', '아늑함', '사적(私的)임', '보호됨' 등의 행복한 감정들을 갖게 하기도 한다.²³⁾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은 고향을 회상하면서 앞서 언급된 일련의 행복과 관련된 감정들을 느끼고, 고향을 안식처로 여기게 된다. 안식처로서 고향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2) 전광식은 고향과 정체성 형성간의 관계를 위와 같이 설정하면서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이 지니는 특징들을 열거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고향·고향상실의 개념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유효하다. 첫째, 고향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소외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향은 '모든 소외의 지양(止揚)'이다. 고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른바 '소외'된다는 것은 고향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는 것, 즉 '실향'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실향은 '근원으로부터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향은 인간 실존의 귀환점이라는 것이다. 인간 존재를 실향민으로 볼 때 인간은 귀향(歸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킨다. 또 순례자로 볼 때에도 순례를 끝내고 고향에 안착함으로써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옴으로써 자기 존재를 완성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향은 인생의 출발지이며 동시에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전광식: 고향. 문학과 지성사 1999, 33쪽 이하 참조.

23) 전광식: 고향, 42-45쪽 참조. 공간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서 연구한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는 집이라는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함과 안락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산산히 흩어져 버릴 것이다. 집은 하늘의 뇌우와 삶의 뇌우들을 거치면서도 인간을 붙잡아 준다. 그것은 육체이자 영혼이며,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이다. 인간은 성급한 형이상학들이 가르치듯 '세계에 내던져' 지기에 앞서, 집이라는 요람에 놓여지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사 2003, 80쪽.

삶이 힘들거나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면 더더욱 고향은 그리워진다. 그것은 고향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한 인간이 만약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승리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그 환희를 전하고 감사해야 하는 장소로서, 또 이와 반대로 실패와 파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고향픈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의미로서, 또 최후로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⁴⁾

이처럼 고향은 한 개인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완성되는 종착지로서 인간존재의 본질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유에서 고향으로부터 유리되고 소외되어 고향을 상실하기도 한다.²⁵⁾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귀향(歸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존재의 근원지에 되돌아감으로써 자기 존재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상실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핍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24)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실린 곳: 존재론 연구 제16집 (2007), 62쪽 참조. 한편 독일의 시인 뢰를린은 귀향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귀향은 건잡을 수 없는 환희를 방랑자에게 퍼붓는 축제이기도 하다.” 울리히 호이서만(강영태 역): 뢰를린. 행림 1980, 17쪽.

25)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과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의 ‘없다’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의 의미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애당초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고향이라고 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것은 귀향의 주체인 인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귀향의 대상인 고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 고향이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이 지녀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와 공간상 고향이 사라져버리거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광식: 고향, 191-192쪽 참조.

26) 발치는 고향을 상실한 인간을 “바람 속에 휘날리는 나뭇잎 Blatt im Wind”, “불쌍한 존재 elendes Ding”라고 표현하며 고향상실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살인에 비견되는 가장 끔찍한 범죄행위는 타인에게서 고향을 강탈하거나 그를 고향에서 내쫓는 것이다. Das Schlimmste Verbrechen, vergleichbar dem Mord, ist es, einem anderen die Heimat zu rauben oder ihn aus seiner Heimat zu vertreiben.” Walser: Wieviel Heimat braucht der Mensch?. In: Helmuth Kiesel u. Frank Barsch (Hrsg.): Ansichten, Einsichten. Aufsätze zur Zeitgeschichte. Werke in zwölf Bänden. Bd. 11. Frankfurt a.M. 1997, S. 252.

지금까지 살펴본 고향·고향상실에 대한 논의는 알프레트의 삶에 적용가능하다. 우선 그의 고향은 동독에 위치한 도시, 드레스덴이다. 그는 1929년에 태어나 1953년 법률공부를 위해 서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약 25년간을 그 곳에서 생활했다. 다시 말해 그는 드레스덴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가 떠올리는 그곳에서의 유년시절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과 함께 한 행복한 추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유년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축음기를 틀어 놓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즐거워 웃는 등 가족공동체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확인한다. 또한 드레스덴은 그의 조부모 때부터 그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살아온 곳으로서 가족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장소 Familienorte”이자 “세대의 장소 Generationenorte”이다.²⁷⁾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그로 인한 행복감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드레스덴은 적어도 그와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⁸⁾

하지만 알프레트는 인생에 걸쳐 총 세 번의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그는 1945년 2월 13일 밤, 첫 번째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이 날 밤부터 3일에 걸쳐 그의 집을 비롯한 드레스덴 전체는 철저히 파괴된다.²⁹⁾ 이 과정에서 조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주변사람들이 죽게 되고

27) 이와 같이 특정한 장소가 ‘가족’, ‘세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작가 너태니얼 호손의 자전적 소설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1962)에 표현되어 있다: “한 가정이 출생과 문힘의 장소와 같은 특정한 장소와 갖는 (이와 같은) 장기간의 결속을 통해, 장소성과 인간 사이에는 일종의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Durch diese lange Verbindung einer Familie mit einer bestimmten Stelle, dem Ort von Geburt und Begräbnis, wird eine Art Verwandtschaft zwischen Örtlichkeit und Menschen geschaffen.”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New York 1962, S. 22.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2006, S. 301에서 재인용.

28) 실제로 알프레트는 고향인 드레스덴으로 가는 길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귀향이란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편안함을 주는 행위로 인식한다. Walser: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DVDK), Frankfurt a.M. 1993, S. 65: “그는 드레스덴을 향했고, 그곳에 가까워 질 수록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차가 드레스덴-뵐라우 역에 도착하자 최상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 귀향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So fuhr er auf Dresden zu und fühlte sich wohler, je näher er Dresden kam, und am wohlsten, als die Elf hielt, droben in Dresen-Bühlau. Er hatte noch nichts dem Heimkommen Vergleichbares erlebt.”

그들과 함께 했던 행복의 터전은 파괴된다. 그리고 1949년에서 1957년까지 불법으로 동독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동독으로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그는 두 번째 고향상실을 경험한다.³⁰⁾ 그가 이미 1953년에 동독을 떠나 서베를린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동독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1957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 불법탈주자로 간주되면서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독의 재건사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드레스덴을 보면서 세 번째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공산주의자인 시장은 전쟁이라는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보존된 드레스덴의 바로크 건물들을 마치 임대아파트인 양 철거한다. 또한 그는 동독정부가 일본자본이 드레스덴에 호화호텔에 짓는 과정에서 그로센 마이스너 골목의 마지막 남은 역사적 건축물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처럼 드레스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가 태어나 자라면서 가족 및 친구와 행복을 나누었던 ‘그의 고향’으로 존재하는 드레스덴은 아닌 것이다.³¹⁾ 이와 같이 알프레트는 자기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을 상

29)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드레스덴 폭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방연합군이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1인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하는 히틀러의 지휘 하에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나치 독일군에게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독일의 도시 드레스덴에 가한 폭격을 말한다. 이 때 드레스덴은 군사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파괴를 통해 나치독일의 전쟁수행의지를 저하시키려는 연합군의 의도로 인해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작품에도 등장한다. (DVK 197): “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드레스덴은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도 망쳐온 군인들 50만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정확하게 겨냥된 영리한 세 번의 대규모 공습으로 도시를 뒤덮었다. 그들은 전쟁수행에 중요하지 않은 도심부, 옛 드레스덴의 보석을 겨냥했다. Der Krieg war doch schon fast zu Ende. Dresden war überfüllt mit 500000 Frauen, Kindern, Soldaten, die aus dem Osten geflohen waren. Und da belegen sie die Stadt mit drei klugen, fabelhaft genau gezielten Großangriffen. Gezielt auf die für die Kriegführung unwichtige Innenstadt, auf das Alt-Dresden-Juwel also.” 말자는 이를 통해 한 개인이 국가가 겪는 역사적 현실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0) 알프레트는 이미 1953년에 법률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고향 드레스덴을 떠나 서베를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동독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덴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해진 1957년의 법률공포가 그의 고향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1)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알프레트의 고향상실은 모두 ‘사회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전쟁, 분단, 계획경제와 같이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집단이 주체가 된 사건에

실한 채 서독에서 타향살이를 한다.³²⁾ 하지만 그는 서독에서마저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민족적) 현실이 그 구성원인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32) 전광식은 고향을 상실한 채 타향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고향상실은 곧 자기 정체성의 근원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타향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정체성을 상실한 실향민은 타향에서 폐쇄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곳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부적응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허무감과 절망감, 자기 침잠과 고독 그리고 향수병이 이에 해당한다. 전광식: 고향, 118 그리고 121쪽 참조. 고향을 상실한 채 서독에서 살아가는 알프레트 또한 혐의 통증, 치통, 편두통, 탈모와 같은 신체적 이상 징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 피해의식과 같은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보인다.

2. 유년기에의 고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프레트는 총 세 번에 걸친 고향상실을 경험한다. 이때 그가 겪는 최초의 고향상실이 그의 유년시절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삶의 무대인 집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드레스덴 폭격은 그에게 이와 같은 인적·물적 가치의 상실을 넘어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의 상실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알프레트는 유년시절에 경험한 최초의 고향상실을 계기로 더 이상 한 인격체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이전에 지녔던 다양한 유아기적 특성을 지속하고 심지어 강화시키는, 즉 유년시절에 고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작품의 초반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주인공의 유아기적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다. 어머니에 대한 집착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이것은 주인공 알프레트가 작품의 첫 장면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난다.

알프레트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때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음악적으로는 섬세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해 법률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법률을 공부한다.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했지만 자신의 행복이 오로지 아들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어머니의 정신적

33) 주인공과 그의 아버지인 구스타프 도른과의 소원한 관계는 주인공에게 부정(父情)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향균: 결핍의 미학, 92-93쪽 참조.

압박으로 인해 서베를린으로 유학해서 법률공부를 계속한다. 그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들은 서로를 “왕자 Prinz”, “양 Schaf” 그리고 “왕비 Königin”³⁴⁾ 등 동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호칭으로 부른다. 심지어 알프레트는 편지에 서명을 할 때 평소에는 자신을 고상하고 연약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의 기린으로 묘사하지만, 슬플 때는 울고 있는 아기토끼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알프레트와 어머니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이러한 편지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동안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알프레트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내왔던 생계비를 줄이려고 하자 어머니에게 아버지와의 이혼을 조언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자신과만 상의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도,³⁵⁾ 그러한 의존적 관계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의 강요로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는 알프레트는 그녀의 방문을 통해 위로를 얻는다. 그는 훗날 어머니의 방문 없이는 서베를린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는 어머니가 곁에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녀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는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 없다는 끔찍한 불안감 속에 자신의 불안정함을 체험한 지금 그의 방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했다. 바로 그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어머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즉시 쫓겨나거나 적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다. 오직 그녀에게서만 안식처가 존재했다. 그의 안식처. 그녀야말로 그의 안식처였다.

Er machte jetzt in seinem Zimmer, als er seine Unbeständigkeit in

34) (DVK 38)

35) 이로 인해 알프레트는 서베를린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친화되지 못하는 이른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einer entsetzlichen Unruhe in einem Nirgendsbleibenkönnen erlebte, eine Erfahrung: er konnte nur an seine Mutter denken, an niemanden sonst. Überall wo er sonst hindachte, fühlte er sich sofort wieder verjagt oder zumindest nicht angenommen. Nur bei ihr war eine Bleibe. Seine Bleibe. Sie war seine Bleibe. (DVDK 166)

알프레트는 어머니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도 한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느라 몸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직접 보살펴 드리지 못하고 요양원에 맡겼다는 자책감에 불안해한다. 이러한 그의 불안은 탈모와 습진, 치통 등 신체적인 결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세는 그가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하숙집에서 부양하면서 사라진다.³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는 알프레트가 갖는 불안과 고통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책이기도하다. 이것은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서베를린에서 함께 법률공부를 하던 달케가 사법시험에 낙방하고 좌절감에 시달리다 약을 먹고 자살한 것을 보고, 자신도 불합격했다라면 자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달케와는 달리 엘베강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방법을 떠올린다. 강물이 양수가 들어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엘베강에 뛰어들고 싶은 그의 소망은 죽음의 세계에서도 어머니와 영원히 합치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⁷⁾

36) 알프레트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의 최종관문인 구두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제대로 간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던 중 그는 구두시험을 보고나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대체시키면서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어머니의 건강회복을 자신의 건강회복이라고 여기며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DVDK 282): “그녀는 홀바인 박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뒤로 회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그녀는 회복하고 있다. 아, 알프레트 자신 또한. Geht es ihr nicht besser, seit sie Dr. Holbeins Tabletten nimmt? Doch, es geht ihr besser. Also. Ach, Alfred.”

37) 정향균: 결핍의 미학, 91쪽 참조. 마르틴 발저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카프카의 서사문학에 대한 연구』와 에세이 『카프카, 끝이 아니다』에서 카프카의 세계관에 대한 사변적 해석에 대

알프레트는 자신의 안정된 삶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그녀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단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커다란 상실감을 갖는다. 라이프치히에서 사범고시에 연이어 낙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비투어를 차석으로 치를 만큼 우수한 학업수행능력을 지닌 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학업성공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행복을 느끼면서, 아비투어를 치르던 날 입었던 양복에 대해 “그는 그 양복을 입고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에 도달했었다”³⁸⁾라며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는 그 양복을 어머니와 자신이 공유한 행복의 징표³⁹⁾로 여기지만, 그녀는 그에게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그 양복을 팔아 그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준다.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의 과거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 자신의 어머니가 야만인이라니! 아, 그것은 야만인보다 더한 것이다 [...] 아비투어양복에 좀이 스는 즉시 그녀는 그것을 팔아도 된다. 하지만 그 전에는 결코 안 된다 [...] 그녀와 그는 과거가 사라지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Daß die eigene Mutter kein bißchen Sinn für die gemeinsame Vergangenheit hat! Die eigene Mutter, eine Barbarin! Ach was, Barbarin, schlimmer [...] Sobald die Motten drin sind in seinem Abituranzug, kann sie ihn verkaufen. Aber keinen Tag vorher [...] Sie

한 이론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때문에 ‘카프카의 모방자’, ‘카프카의 제자’, ‘카프카의 계승자’라고 불린다. Vgl. Meier: Martin Walser: Templones Ende, S. 186.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죽음의 방법으로서 강물에 투신하는 것은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에서 차용한 모티프라고 볼 수도 있다. 알프레트가 엘베강에 투신함으로써 사후세계에서 어머니와의 합일을 꿈꾸듯이, 『선고』의 주인공 게오르크 또한 익사형이라는 아버지의 사형선고를 스스로 집행하면서 부모와의 화해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혁준: 카프카 단편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21쪽 참조.

38) (DVK 210): “In diesem Anzug hat er den Höhepunkt seines ganzen bisherigen Lebens erreicht.”

39) 이에 앞서 그는 어머니를 씻겨주면서 그녀의 왼쪽 귀에 자기와 똑같이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공유’는 그를 안정시킨다. (DVK 277): “그는 어머니를 씻겨 드릴때 그녀의 왼쪽 귀에 자신과 꼭 같은 위치에 작은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를 안심시켰다. Als er die Mutter wusch, entdeckte er, daß sie genau wie er im linken Ohr eine kleine Warze hatte. Das beruhigte ihn.”

und er dürfen die Vergangenheit nicht vergehen lassen. (DVDK 210)

여기서 “야만인 Barbarin”이라는 표현은 서베를린 유학초기에 알프레트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녀를 “어린양 Schaf”, “왕비 Königin”라는 친근함과 애정이 깃든 호칭으로 표현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알프레트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단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정체성 확립 시도의 일환으로 유년시절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⁴⁰⁾ 어머니를 그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여겼던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를 재구성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된 이래로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내버려진 것으로, 단절된 것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것으로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그의 과거가 보존되어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과거를 도달할 수 없는 대륙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머니의 죽음은 1960년 8월 3일에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그 중요성과 견딜 수 없음이 매일 같이 확장되는 일종의 파국이였다.

Seit er die Mutter nicht mehr fragen konnte, fühlte er sich ausgesetzt, abgeschnitten, verloren. Ohne seine Vergangenheit war er nichts. Die Mutter war der Hort seiner Vergangenheit gewesen. Er hatte sich einfach darauf verlassen, daß sie immer da sein würde [...] Der Tod der Mutter machte seine Vergangenheit zu einem unerreichbaren Kontinent. Der Tod der Mutter war eine Karastrophe, die am 3. August 1960 begonnen hatte und seitdem

40)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과거재구성에 대해서는 본고 제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andauerte, sich ausbreitete, jeden Tag zunahm an Wichtigkeit und Unerträglichkeit. (DVK 337)

어머니에 대한 알프레트의 집착과 의존은 그가 그녀로부터 안식처와 위로를 얻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에 대해 알프레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어머니와 그가 소위 너무나도 긴밀한 결속관계를 가졌었고 그것을 제때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망쳐버렸든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또 망쳐버리지 않았던가!

Was soll er in seinem Leben nicht alles verloren oder verpatzt oder verloren und verpatzt haben, weil er angeblich eine zu enge Mutterbindung gehabt und nicht rechtzeitig überwunden habe. (DVK 509)

결국 그와 어머니의 강한 유대관계는 외롭고 불안한 서베를린에서의 삶에 '일시적인' 안정감만을 주었을 뿐, 정체성확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었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알프레트는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 외에도 유아기적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빨려고 하는가 하면⁴¹⁾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땀 냄새를 맡기도 한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마치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이 굽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과 <시스틴의 마돈나> 그림에 나오는 곱슬머리 소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도 이에 해당한다.⁴²⁾ 특히 알프레트는 서베를린에서 사법고시 응

41)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유아기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프로이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엄지손가락 빨기를 아동기 성 표현의 예로 삼았으며, 후기 저서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손가락을 빠는 행위가 성기능의 발전단계상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구강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박혜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여성 I. 실린 곳: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3집(2008), 185쪽 참조.

시시기를 계속해서 미루는데, 이것은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있는 유년시절을 연장시킴으로써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의 내적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⁴³⁾

유년시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의 욕구는 유년시절에 다녔던 크로이츠학교의 동창회에서 반친구들에게 느끼는 내면적 거리감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졸업 후 40여년 만에 만난 어린시절 친구들의 달라진 얼굴에서 낯설음을 느끼지만,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그들을 보며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년시절의 친구들로 인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그들은 진정 유년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과거를 지녔었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년시절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는 결국 모임이 끝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렸다는 행복감이 아닌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한편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신사들은 그가 알고 있었던 급우들이 아니었다. 그 급우들은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다 자란 성인들만이 있었다. 그들이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낯선 이들로만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dererseits waren die Herren, die da geredet hatten, nicht die Klassenkameraden, die er noch wußte. Die gab es offenbar nicht mehr. Es gab nur noch Erwachsene. Hätten die sich nicht durch ihre Erinnerungen ausgewiesen, hätten es ganz Fremde gewesen sein können. (DVVK 507)

42) 정향균: 결핍의 미학, 92쪽 참조.

43) 알프레트는 유년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범람가가 될 것을 강요받아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라이프치히에서의 거둬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베를린으로까지 유학을 가서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한다. 사법고시 준비생으로서 낯설고 힘든 서베를린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하는 그는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주고 방문하는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다. 이런 그에게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는’ 현재의 상태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고시일자를 미루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기간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Vgl. Nadja Anthes-Ploch: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In: Gardez! Hochschulschriften. Bd. 3. Mainz 1996, S. 105.

영원히 유년시절에 머물고자 하는 내적욕구로 가득 찬 그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판단력의 결여가 나타난다. 그는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약해질 때 치통을 느끼는데 이를 치료할 의사를 선정할 때 어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결정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편지봉투를 봉할 때 혀로 침을 발라도 되는지를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아기적 특성을 보이는 알프레트는 때로는 자신의 어른답지 못한 행동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인이 되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한다. 이로써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영원한 아이’로 남아 있다.⁴⁴⁾

44) 이것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구부린 형태로 죽은 채 발견된 그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죽기 직전에 읽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스파 하우스 저 전기』에서 ‘조속한 아이’라는 단어가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Vgl. (DVK 518)

II. 정체성의 혼란

1. 비정상적인 성적체성

성인이 되기를 거부한 채 평생을 아이처럼 산 알프레트는 성적체성의 측면에서도 비정상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성적(性的)인 것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자위행위를 해롭고 불쾌하며 나쁜 행동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성에 대한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기독교적인 금욕의 교육에 기인한다. 어머니는 유년시절의 알프레트에게 성교육을 하려는 아버지에게 매우 화를 내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알프레트를 성적인 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한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기독교적인 금욕의 가치를 내면화하고는 자신의 첫 자위행위를 “(부모님이 지닌) 최후이자 최고의 심판기관인 기독교 정신이 유죄로 판결하고, 금지했으며, 저주했던”⁴⁵⁾ 행위로 규정한다. 그는 이후에도 매번 자위를 하고 나서 금기를 어긴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자위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혐오한다. 그가 보기에 서베를린 사람들은 오직 성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야만인들 Kannibalen”⁴⁶⁾이다. 그가 보기에 서베를린은 타인과 교류를 맺을 때에도 상대가 성적인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야만인들로 가득한 “사악한 오물 덩어리 ein böseartige Schmierenstück”⁴⁷⁾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서베를린의 성도취적 사회분위기에 혐오감을 느끼며, 이곳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성적 욕망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고 했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성적인 것에 대

45) (DVK 176): “das Christentum, die letzte, höchste Instanz also, hat es verurteilt, verboten, verdammt.”

46) (DVK 406)

47) (DVK 344)

한 그의 혐오감은 ‘프로이트의 도시’ 서베를린을 떠나서도 계속된다. 그는 헤센 주에서 극장 관련 법률업무를 담당하는데, 등급판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편의 영화에 묘사된 성행위를 보고는 다음과 같이 느낀다.

그는 이 성적 행위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 야만인들. 그것이 그가 받은 인상이었다. 이 영화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야만성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야만적인 경향을 지녔음에도 시민적인 생활에서는 그것을 발산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 역겨울 정도로 매혹적인 것으로서의 나체 - 이것이야말로 야만성이었다.

Er war diesen Sexualhandlungen nicht gewachsen [...] Kannibalen. Das war sein Eindruck. Alle, die an diesem Film mitwirkten, spielten Kannibalen, und das taten sie, weil sie wirklich kannibalisch tendierten, in ihrem bürgerlichen Leben aber keine Gelegenheit hatten, ihr Kannibalenwesen auszuleben [...] Das Nackte als etwas scheußlich Appetitliches - das war doch Kannibalismus. (DVDK 406)

알프레트가 거부하는 성적인 것에는 이성(異性)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그는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어머니(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대리여성⁴⁸⁾)하고만 교제한다. 그녀 또한 자기 스스로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표현하는데,⁴⁹⁾ 이러한 두 모자의 근친상간적 관계⁵⁰⁾는 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나 레더만이라는 여인은 그들 모자를 처음 봤

48) 친모인 마르타 도른 외에 알프레트가 ‘어머니 역할의 대리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에는 필츠 부인, 라데부인 그리고 페르가멘트 부인이 있다.

49) (DVDK 50):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알프레트와 영화를 보러가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어머니,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 Aber es erheiterte sie immer wieder, daß die neue Freundin, mit der Alfred endlich mal ins Kino ging, Mutti war.”

50) 알프레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성관계를 맺던 침실에서 마치 성행위자로서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하듯 처음으로 자위행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알프레트와 어머니의 근친상간적 관계가 나타난다.

을 때 연인사이로 착각했으며, 알프레트의 친구 바일러는 평소 알프레트가 자기 전에 정성껏 편지를 쓰던 대상이 그의 어머니였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가 결혼하면 어머니와는 이혼하게 된다 When a young man marries, he divorced his mother”⁵¹⁾라는 유대인의 속담을 언급하며 그들 모자를 ‘부부관계’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녀의 진료를 담당하는 여의사는 어머니를 향한 알프레트의 사랑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⁵²⁾

어머니에게 국한된 알프레트의 이성관계는 그녀의 죽음 후에도 지속된다. 알프레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 여자를 만날 것을 권한다. 하지만 그와 어머니 사이에는 다른 여성이 파고들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한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신체적 공감을 통해 형성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라며 거부한다.

위와 같이 알프레트는 어머니라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남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피해망상으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한다.⁵⁴⁾ 이것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간주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표현되기도 한다. 서베를린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자신에 대한 관청동료들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단정짓는다.

로체부인이 이끄는 관청동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의 묘지에 많은 돈을

51) (DVKD 181)

52) (DVKD 253): “어머니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부자연스럽습니다. Ihre Liebe zu Ihrer Mutter ist unnatürlich.”

53) (DVKD 389): “Mit einer Frau zusammenzuleben, das heißt für ihn, auf das verzichten, was durch körperliche Sympathie erzeugt wird.”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공감은 알프레트가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어머니의 양수를 의미하는 엘베강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욕구와 죽는 순간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을 구부린 것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54) 정향균: 결핍의 미학, 95쪽 참조.

지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동성애자일 것이다.

Die von Frau Lotze dirigierte Amtsmeinung konnte nur sein: Wer soviel Geld ausgibt für ein Mutter-Grab, Geld, das er sich zuerst noch durch einen Sparkassenkredit beschaffen muß, so einer muß homosexuell sein. (DVDK 372)

‘상상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동성애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성애자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자신을 둘러싼 동성애 의혹을 주위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만드는 로젤렌박사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⁵⁵⁾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취급받는 것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말년에 젊은 남성에게 대해 경탄의 시선을 보내거나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⁵⁶⁾

이와 같은 알프레트가 지닌 성적체성에 나타난 비정상성은 앞서 살펴본 그의 유아기적 특성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어머니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기적 성향을 극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의 밀접한 공생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남성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성적체성을 지닌 ‘영원한 아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알프레트가 ‘영원한 유년시절’에 머무르게 된 것은 프로이트의 성발달단계이론과 이를 기본으로 인격형성과정을 설명한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에 입각해 설명될 수 있다.⁵⁷⁾

55) 알프레트는 로젤렌 박사가 자신을 절대 유혹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와의 동성교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무(無)의 상태로 이끄는 사랑”이라 거부하면서 “동성애자로 취급받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긴다. (DVDK 374): “einfach nicht vorstellbar. Eine zu nichts führende Liebe.” u. (DVDK 389): “seine schlimmste Befürchtung, für einen Homosexuellen gehalten zu werden”

56) 젊은 남성에게 경탄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작 그들이 접근하면 매정하게 뿌리치는 알프레트의 동성애적 성향은 그의 고백 속 표현처럼 ‘실천되지는 않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에, 그의 본성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VDK 498): “나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 동성애자입니다. Ich bin ein nichtpraktizierender Homosexueller.”

에릭슨은 인격형성과정을 영아기, 전아동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중기, 후기 성인기 등 총 여덟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중 초기 5단계는 각각 프로이트가 제시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에 대칭된다.⁵⁸⁾ 이중 알프레트는 아동기(남근기)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은 아동기의 유아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때에 주위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주도성이 발달하여 다음 단계인 학령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⁹⁾ 하지만 알프레트는 어머니로부터 법률가가 될 것을 강요받은 것을 대표적인 예로 하여 모든 것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실행하는 ‘주도성이 결여된’ 유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이트의 성발달단계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성기능의 발전단계상 제 3단계인 남근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성기로부터 쾌락을 느끼고 이를 위해 손에 의한 임의적 행위, 즉 자위를 시도한다. 자위를 통한 성적 쾌락을 경험한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육체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이를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남자아이의 성기를 없애겠다는 위협을 한다. 프로이트는 남자아이가 거세의 위협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충격을 거세 콤플렉스라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남자아이는 자신의 성기를 위해 어머니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유아는 남근기와 잠재기를 거쳐 성기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충동들을 성기(성욕)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알프레트는 남근기에서 성기기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남근기에 있는 남자아이의 발전과정과는 반대로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자 성기와 자위행위로 대표되는 자신

57) 에릭슨 Erik H. Erikson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생득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재적 욕구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져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같은 발달관을 가지고 있다.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교육과학사 2010, 238쪽 참조.

58)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286쪽 이하 참조.

59) 박아청: 같은 책, 239쪽 참조.

의 성적 욕구를 포기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첫 자위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 후 성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거부하는 ‘성기(성욕)의 거부’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조각상을 보고는 바로 눈길을 피하는 것과, 남성의 성기(페니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혐오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성기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부속물 Anhängsel”⁶⁰⁾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난다.⁶¹⁾ 이는 에릭슨이 제시한 성기기의 대응 개념인 청소년기에 실패한 것에도 적용가능하다. 에릭슨은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에 당황하며 자신의 위치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⁶²⁾ 하지만 알프레트는 어머니(어머니 역할을 하는 대리여성)하고만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결핍되어 있다. 사범고시에 합격한 후 시작한 공직생활을 통해 그가 법률가로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진입하지 못한다. 에릭슨은 초기 성인기를 겪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며,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시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집단에서도 주변 구성원들과 친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교제하지 못하는 알프레트는 이러한 성인기에 접어들지 못한 ‘미성년자’일 뿐이다.

60) (DVK 373)

61) 한편 프로이트는 남근기에 놓인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와 같이 손에 의한 성기자극을 통해 쾌락을 얻으려 시도하지만, 여자아이에게는 남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자아이는 이를 신체적 열등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전체 인격으로 확장시킨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는 자신과 대조되는 주변 남자아이들의 우월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곧 자위시도를 그만두고 성 일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알프레트가 남근기의 남자아이로서 실행했어야 할 ‘어머니 포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시기의 여자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비록 자위행위를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자위행위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남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박성수·한승완 역):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4, 425쪽 이하 참조.

62)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의 발달이론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실린 곳: 사회과학논총 제26권(2007), 146쪽 참조.

2. 정착의 실패와 이방인의 삶

어머니와 떨어져 낯선 서베를린에서 홀로 유학하는 알프레트는 하숙집에서 생활한다.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이미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의 편지와 방문에 위로를 얻으며 학업에 정진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이유에서 하숙집 주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서베를린에서만 총 네 번의 이사를 하게 된다.

첫 번째 하숙집 주인인 슈탄트케 부인은 그와 어머니 사이의 서신왕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동독에서 부친 속달편지의 수신자가 자기명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동독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자신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알프레트는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위로와 안정을 얻는데, 슈탄트케 부인은 이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를 자극한다. 이어서 그녀는 알프레트가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그의 생활에 간섭하고, 결국 그는 다음 하숙집인 브레츠크 부인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 브레츠크 부인은 그가 연탄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못하면서 영화를 보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더욱이 그녀는 알프레트가 고향을 방문하느라 방을 비운 사이 그의 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 방에 있던 침대소파를 치우는데, 이것은 알프레트에게 자제할 수 없을 정도의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 침대는 어머니의 방문에 사용될 ‘신성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⁶³⁾ 그는 타테씨의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그곳의 생활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주인인 타테씨가 그가 지불하는 연탄 값을 조금씩 횡령하다가 그에게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하숙집에서의 불화로 인해 그는 자신이 마치 적국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갖는다. 알프레트는 사법고

63) 본고 제1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알프레트는 서베를린에서 겪는 외로움을 어머니와의 서신왕래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으로 위로받는다.

시에 합격한 후 글라우브레히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한다. 그곳의 타일장식과 번기에 새겨진 글자는 그에게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긴다.⁶⁴⁾ 하지만 지나치게 근검절약하는 글라우브레히트부인은 그에게 사소한 것도 절약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를 압박한다. 이성교제를 강요하는 것 또한 그에게 불쾌감을 준다. 결국 그는 서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하숙집인 클라프로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는 주인집 부부의 잦은 가정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25개월을 함께 보낸 추억이 깃든 장소라는 생각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글라우브레히트부인과 마찬가지로 이성친구를 사귄 것을 강요하는 클라프로트 부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서베를린에서 비스바덴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서베를린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한다.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채 방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알프레트의 ‘방황’은 인간의 거주를 단순한 공간학적 개념을 넘어 철학적 주제로 삼은 현대 철학자 볼노브의 인간학적 거주론과 연관시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거주개념이 공간적 차원이 아닌 편안함이나 만족감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⁶⁵⁾ ‘거주 Wohne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거주란 더 이상 자신에게서 낯선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자리에 낯선 자로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 곧 그 공간 안에서 인간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련 속에서 구

64) 알프레트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생과제를 해결한 후 이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거처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유년시절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에게 고향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글라우브레히트 부부의 주거환경은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진다. 정향균: 결핍의 미학, 98쪽 참조.

65) Vgl. Otto Friedrich Bollnow: Mensch und Raum. Stuttgart 1994, S. 127.

출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거주란 공간을 차지하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와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이 집에 놓인 어떤 물건처럼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살아가고 삶을 구현하면서 세상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⁶⁷⁾ 나아가 그는 인간은 오직 거주를 통해서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주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결정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한다.⁶⁸⁾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⁶⁹⁾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바로 공간 안에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탈주자와 모험가의 고향상실⁷⁰⁾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의 일정한 자리에서 정주하고, 확고하게 기초를 세우고, 안전을 위한 고유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알프레트는 하숙집 주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네 곳의 하숙집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잣은 이사로 대표되는 그의 삶

66)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브(오인탁·정혜영 역): *교육의 인간학*. 문음사 1988, 148쪽

67) 강학숙: *존재와 공간, 하이데거 존재의 토포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392쪽 참조

68) Bollnow: *Mensch und Raum*, S. 126: “여기서 거주란 다른 활동과 같은 임의의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 전체와 갖는 관계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 여기서 제시되었듯이 인간은 오직 거주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다. Das Wohnen ist hier also nicht mehr eine beliebige Tätigkeit neben manchen andern, sondern ist eine Wesensbestimmung des Menschen, die über sein Verhältnis zur Welt im ganzen entscheidet [...] nur im Wohnen kann der Mensch, wie hier gezeigt wird, zur Erfüllung seines wahren Wesens gelangen.”

69) 볼노브는 인간적 본질을 실현시키는 거주를 ‘(인간에게) 적합한 거주 *rechtes Wohnen*’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고향상실에 대한 대항이고, 둘째는 내부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위협에 대한 대항 그리고 셋째는 스스로 집안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더 큰 공간의 전체(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이다. Vgl. Bollnow: *Mensch und Raum*, S. 310.

70) 고향상실 *Heimatlosigkeit*은 알프레트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 절에서 다루어진 그의 떠돌이 생활은 그의 고향상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은 일종의 도피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⁷¹⁾

또한 볼노브는 적합한 거주지 마지막 요구과제로서 인간이 집안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더 큰 규모를 지닌 공간의 전체(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프레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속한 두 사회, 동독과 서독 모두를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몰아세운다. 그는 서베를린에서 하숙집을 바꿀 때마다 낯선 느낌, 심지어 자신이 적국에 있는 듯 한 느낌마저 갖는데, 이러한 성향은 서독을 자신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²⁾ 서독에 대한 그의 거부감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다. 우선 그는 서독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로 인해 야기된 물질만능주의를 거부한다. 그는 점점 화려하게 장식되는 상품세계로 변해가는 서베를린에서 자신이 단지 손님의 자격으로 방문했을 뿐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서독 사람들은 이론의 정당성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며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을 위해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알프레트는 서독의 정당에 기반을 둔 의회민주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지닌다. 그는 대연립과 베트남전쟁의 승인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거리시위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국회에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하는 그는 서독의 정당들과 정부부처의 공생관계를 체험하며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는 정당들에서 단지 권력회사들만을 보았다. 그러한 정당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71) Vgl. Anthes-Ploch: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S. 104.

72) 정향균: 결핍의 미학, 99쪽 참조.

수 있는 그런 권력회사들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정당들의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력이 공중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행해진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In Parteien sah er nur noch Machtfirmen. Die gibt es, daß Einzelne ihr Bedürfnis, Macht über andere auszuüben, befriedigen können. Das Programmgesums der Parteien soll die Illusion erzeugen, Macht werde zum Besten der Allgemeinheit ausgeübt. (DVKD 489)

하지만 그가 위와 같이 서독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지녔다고 해서 동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동독의 부정적인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한다. 무엇보다 그는 모든 것을 지배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와 연결 짓는 경직된 동독정치의 피해자이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시절 사법고시에 낙방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계획수립을 논할 때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그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견해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제체제와 관료제의 억압성과 비효율성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가 보기에 동독의 시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 의해 자율성과 경쟁력을 상실했다.⁷³⁾ 또한 동독은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궁핍함 때문에 저녁에 전기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세금을 내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에게 동독사회는 추진력을 상실한 사회이다. 이처럼 알프레트는 동독과 서독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존재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거주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 친화되지 못하는 점에서

73) 알프레트는 서베를린에서 세탁을 맡기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동독을 방문할 때 그것들을 가져간다. 그는 서독과 비교했을 때 공짜에 가까운 빨래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독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해 자신들의 노동량에 요구되는 합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도 드러난다. 이것은 서독에서의 그의 생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베를린 유학생할 초기, 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을 듣는 그가 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다른 수강생들은 그 자리는 이미 정해진 자리라고 우기며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동독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학문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성적인 것에 무관심한 그의 태도를 가지고 조롱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알프레트는 서독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동독에서 온, “자리를 위해 투쟁하는 장기이주민”⁷⁴⁾일 뿐이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받은 그는 그 집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가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⁷⁵⁾ 그는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맥락에서 웃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웃지 못했기 때문에 웃음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강하게 소외된다. 그의 소외된 삶은 그의 부재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에 3개월이나 결석하지만 교수를 포함한 그 수업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그의 부재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물론 그가 수업시간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재가 인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소외된다. 그는 그의 성적정체성을 둘러싼 의혹들, 자기의사 전달력의 결여 그리고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어머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주변 동료들과 친화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멀어진다.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보이는 사회부적응성향은 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다시 말해 그는 서베를린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드라이어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다른 수강생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리선정으로 인해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

74) (DVK 78): “Der um einen Stuhl kämpfende Daueremigrant”

75) 정향균: 결핍의 미학, 99쪽 참조.

면서 빈 의자를 갖고 와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 앉는다. 사법고시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그에게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은 낭비일 뿐이다. 이러한 그의 자발적인 사회적 고립은 앞서 살펴보았던 그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에도 일부분 기인한다. 사법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법학공부를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호패씨에게 그동안 강요된 법학공부로부터 받아온 정신적 괴로움을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는다. 하지만 그는 곧 주변 사람들에게 속을 터놓고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떠올리며 이러한 충동을 억누른다. 어머니와의 강한 유대관계가 자신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발현되려던 그의 사회성을 차단시킨 것이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도 서베를린은 그에게 단지 낯선 곳일 뿐이다.⁷⁶⁾ 이러한 감정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욱 심화된다. 그는 어머니가 떠나고 없는 서베를린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기 스스로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일종의 방치된 자”⁷⁷⁾라고 느낀다.

위와 같이 동독출신의 알프레트는 법률공부를 하기 위해 동독을 떠나 1953년부터 서베를린에서 유학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⁷⁸⁾ 1987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할 때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낯선 곳, 서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⁷⁹⁾

76) 실제로 알프레트는 자신을 서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필러박사의 말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옷을 입어도 낯설고, 벗어도 낯설다. Fremd bin ich eingezogen, fremd zieh ich wieder aus” (DVDK 201)

77) (DVDK 381): “Man ist wieder jemand, den keiner fördert, keiner schätzt. Eine Art Liegengelassener ist man.”

78) 1956년, 사법고시라는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는 다음 해인 1957년에 1949년에서 1957년 사이에 동독을 불법으로 떠난 사람의 재입국을 제한한 동독의 탈주자 입국금지 법률이 공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그는 낯선 서독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분단이라는 사회적 현실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79)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프레트가 서독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동서독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이점들과 여기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프레트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주민들이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선

II. 정체성 확립시도와 그 한계

1. 유년시절의 재구성

세 차례에 걸친 알프레트의 고향상실은 그를 고향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단절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에서의 유년시절로부터도 단절시켜 놓았다. 과거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⁸⁰⁾ 그는 심지어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일종의 파괴과정이라고 여기기까지 한다.⁸¹⁾ 하지만 그가 단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러한 현실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현실에 대항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노력이 사회적 부적응, 성적정체성의 혼란 등 현재 자신의 비정상적인 면들을 개선하려는, 다시 말해 현재를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아니라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 것, 즉 과거를 현실에 재위치시키는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⁸²⁾ 유년시절에 겪은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의 상실’과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통일은 경제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서독의 주도하에 흡수통일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통일독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서독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었다. 통일 초기,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은 이를 일종의 해방으로 여기며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지녀왔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서독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통일독일 사회에서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독일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여긴다. 이영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실린 곳: 한국 사회학 제39집(2005), 138쪽 이하 참조.

80)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128쪽.

81) (DVDK 384): “Die Wirklichkeit ist ein Vernichtungsprozeß. Das sogenannte Wirklichkeitsprinzip ist ein System zur Verklärung dieses Vernichtungsprozess.”

82) 알프레트의 과거지향적인 성향은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는 미래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가 불분명해지거나 기억에서 잊혀지려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그는 심지어 기차를 탈 때에도 기차가 가는 방향을 등지고 앉는다.

고 과거 유년시절에 고착된 삶을 살아가는 그는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단절된 과거인 유년시절을 재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⁸³⁾

알프레트는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와 관련된 기억들을 끊임없이 떠올리는데⁸⁴⁾ 이때 그는 그가 살았던 드레스덴(그 곳에서의 집)이라는 ‘장소’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⁸⁵⁾ 그는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함에 있어 ‘장소에 기반을 둔 기억’을 그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기억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알라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기억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기억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하나는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한 그림으로 코드화한 ‘상상 imagines’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그림들을 구조화된 공간의 특수한 터에 배치한 ‘장소 loci’이다. 그는 이런 유형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건축물(그 안의 물건들)을 기억이 형상화된 것으로 간주하며 장소에 기반을 둔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⁸⁶⁾

83) 이 외에도 작품에는 그의 과거지향적(집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는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구하려고 했다. Er wollte, was gewesen war, retten.” (DVDK 13), “그는 사라지는 것에 대해 자신을 지켜야만 해야만 했다. Er mußte sich wehren gegen das Vernichtetwerden.” (DVDK 14)

84) 정체성은 자기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자아의식’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아의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는 형성되지도 못하고 또한 보존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은 자아의식(정체성)의 형성 및 보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향균: 르네모시네의 부활. 뿌리와이파리 2005, 25쪽 참조.

85) 알프레트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로서의 과거 재구성의 노력과정에서 드레스덴이라는 장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년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집이 갖고 있는 인간 존재와의 긴밀한 연관성에 기인한다. 빈센트 비시나스는 집이라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무엇이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해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길잡이가 되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존재의 거주장소 dwelling-place of being’가 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펠프: 장소와 장소상실, 97쪽 참조.

86) Vgl. Assmann: Erinnerungsräume, S. 158. 이와 같은 주장은 고대 로마 시절 기억술의 이론가인 키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키케로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저서에서 이미지와 장소를 기억행위의 초석이라 명명함과 동시에 특정한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코드화된 공간적인 결합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령 장소가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문화적 기억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소는 기억을 공고히 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단기적인 기억을 능가하고 인공물로 구체화된 개인과 시대, 그리고 문화의 지속성을 구현한다.

Selbst wenn Orten kein immanentes Gedächtnis innewohnt, so sind sie doch für die Konstruktion kultureller Erinnerungsräume von hervorragender Bedeutung. Nicht nur, daß sie die Erinnerung festigen und beglaubigen, indem sie sie lokal im Boden verankern, sie verkörpern auch eine Kontinuität der Dauer, die die vergleichsweise kurzphasige Erinnerung von Individuen, Epochen und auch Kulturen, die in Artefakten konkretisiert ist, übersteigt.⁸⁷⁾

또한 그는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와 관련된) 사물들에 기반을 둔 회상과 과거의 재구성의 상관관계를 주장한다.

과거의 정신적인 유산은 눈으로 알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나는 숙련된 시선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 [...] 이러한 재생은 회상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회상에서는 고대 작가들의 원전 텍스트 외에도 역사적인 유적지와 그 유물들이 '재생돕기'에 기여한다.

das geistige Vermächtnis der Vergangenheit wird sinnlich erfahrbar durch kundige Augen, die aufsichtbare Relikte stoßen [...] diese erneuernde Wiedergeburt findet im Medium einer Erinnerung statt, bei der neben den Originaltexten antiker Autoren auch die historischen Stätten und ihre Relikte 'Wiedergeburtshilfe' leisten.⁸⁸⁾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면 효과적인 기억을 위해서는 우선 특정 장

Ebd., S. 298 u. 313f.

87) Assmann: a.a.O., S. 411f.

88) Assmann: a.a.O., S. 427.

소를 선정한 후,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싶어 하는 대상에 관한 심리적인 상을 만들어 그 장소와 결부 시켜야 한다. 또한 일련의 장소와 거기에 놓여진(관련된) 일련의 사물들을 연상하고 그 장소를 재구성함으로써 기억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다.⁸⁹⁾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은 알프레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베를린에서 수차례에 걸쳐 하숙집을 변경하였던 알프레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글라우브레히트 부부의 집으로 이사한다. 알프레트는 그 집의 각종 장식, 가구에서 드레스덴 유년시절의 집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그에게 매우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드레스덴 폭격이 있기 전 유년시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한다.⁹⁰⁾ 그 첫 번째 시도로 알프레트는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벤트너를 통해 자신의 고모가 갖고 있는 크로이츠학창시절의 사진을 습득한다. 이때 알프레트는 사진의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구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 그는 오직 원본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사본에 인화된 자신은 삼십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과거집착성향, 특히 과거를 ‘온전하게’ 재구성하고 또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성향이 나타난다.⁹¹⁾ 이러한 그의 성향은 드

89)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실린 곳: 역사교육 제85집(2003), 164쪽 참조. 이처럼 기억행위와 장소의 밀접한 관계는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터 lieux de mémoire’ 개념으로도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기억의 터’란 환기력을 지니는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 행위와 기호, 또는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을 총망라하는 개념들이다. 이후 설명될 알프레트의 과거기억은 이와 같은 ‘기억의 터’로서의 드레스덴과 그와 관련된 사물들(집, 가구 등)에 기반을 둔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1, 57쪽 참조.

90) 하지만 이에 앞서 동독정부에 의해 불법탈주자 신분이 된 그는 드레스덴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서독의 지인들 또는 드레스덴에 남아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알프레트의 시도는 동-서독 분단이라는 사회적 현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민족)적 현실이 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1) 알프레트는 드레스덴 유년시절인 1931년, 베르텔의 결혼식에서 찍은 부모님이 나온 사진을 분석하고 이를 찾기 위해 게시판에 광고문을 낼 때도 이와 같은 성향을 드러낸다. 그는 이 사진의 원본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진 속에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DVDK 428): “ 그는 단지 이 원본이 너무 갖고 싶었다. 갈색에서 붉은 색

레스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려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심지어 드레스텐에 있는 어머니가 몸져누워 있는 동안에도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녀가 드레스텐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알프레트가 작성한 이 목록들 중 최우선순위가 바로 슈타인 회벨 부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총 삼 회에 걸친 드레스텐 폭격 당시 알프레트의 조부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또한 여전히 드레스텐에 살고 있다면,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방문하겠다고 계획한다. 이처럼 알프레트에게는 드레스텐 유년시절의 집과 가구들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그 시절과 관련된 인물들 또한 과거재구성을 위한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후 드레스텐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은 더욱 활발해진다.⁹²⁾

그는 드레스텐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2천 년 전의 고대도시인 페르가몬 유적을 발굴하는 탐사 프로젝트에 비유한다.⁹³⁾ 발굴 또는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서 집단의 역사가 재구성되고

까지 이르는 이 어두운 색감은 그에게 있어 사진에 찍힌 시대 그 자체였다. Er hätte dieses Original nur zu gern behalten. Dieser dunkle, von Braun ins Rötliche reichende Farbton war für ihn die fotografierte Zeit selbst.”

- 92) 알프레트는 드레스텐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 것을 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한다. (DVKD 263): “언젠가 그것(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의 주된 작업이자 유일한 방향이 되어야 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 당장. Irgendwann mußte das seine Hauptarbeit, seine einzige Richtung werden. Nicht irgendwann. Jetzt. Sofort.”
- 93) 과거의 재구성을 유적을 발굴하는 행위에 비유하는 것은 프로이트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논문 「Konstruktionen in der Analyse」에서 정신 상담을 받는 환자의 징후를 보고 망각한 것을 알아내고 구성하는 정신분석가의 작업을 고고학자의 유적발굴작업에 비유하였다. Freud, Sigmund : Konstruktionen in der Analyse. In: Anna Freud (Hrsg.): Gesammelte Werke. Werke aus den Jahren 1932-1939. Bd. 16. Frankfurt a.M. 1950¹, S. 45f: “고고학자는 파괴되었거나 파묻힌 과거의 주거지나 건물을 발굴한다 [...] 고고학자가 잔존해 있는 담의 잔해로 건물의 내벽을 구성하고, 바닥에 파인 구덩이를 보고 기둥의 수와 위치를 알아내며, 폐허에서 발견한 잔해로 당시의 벽장식과 벽화를 복원하듯, 정신분석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억의 과편들, 연상들, 피분석자가 하는 말들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 고고학자도 정신분석가도 남아 있는 잔해를 끼워 맞추어 보완하여 재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der eine zerstörte oder verschüttete Wohnstätte oder ein Bauwerk der Vergangenheit ausgräbt [...] Wie der Archäologe aus stehengebliebenen Mauerresten die Wandungen des Gebäudes aufbaut, aus Vertiefungen im Boden die Anzahl und Stellung der Säulen bestimmt, aus den im Schutt gefundenen Resten die einstiegen Wandverzierungen und

이를 통해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 또한 과거에 대한 탐색과 그 결과물들의 재구성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⁹⁴⁾ 이러한 확신에 근거하여 그는 사진 한 장, 침대 앞에 까는 양탄자 하나에까지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것들을 수집하려 한다.

옷들, 그의 것과 어머니의 것들, 책들, 그림들, 속옷들, 침대 앞에 까는 양탄자, 전등, 가구들, 모든 것들은 되찾아져야 했고 한데 수집되어진 다음에 서베를린으로 옮겨져야만 했다. 그는 집을 세 얻은 다음 그것들을 드레스덴에서와 꼭 같게 꾸며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단지 드레스덴에서의 상태 그대로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놓여 있던 내용물과 방식까지 모두 동일하게 존재해야 했다. 냄비들, 프라이팬들 그리고 접시들로 말이다.

Die Kleider, seine und Mutters, die Bücher, die Bilder, die Wäsche, die Bettvorleger, die Lampen, die Möbel, alles mußte wieder aufgefunden, zusammengetragen und dann nach West-Berlin transportiert werden. Er mußte eine Wohnung mieten, sie genau so einrichten wie die in Dresden; aber nicht nur so aussehen sollte alles, wie es dort ausgesehen hatte, es sollte vorhanden sein, was und wie es dort gewesen war. Mit Töpfen und Pfannen und Tellern. (DVDK 263)⁹⁵⁾

Wandgemälde wiederherstellt, genauso geht der Analytiker vor, wenn er seine Schlüsse aus Erinnerungsbrocken, Assoziationen und aktiven Äußerungen des Analysierten zieht. Beiden bleibt das Recht zur Rekonstruktion durch Ergänzung und Zusammenfügung der erhaltenen Reste unbestritten.”

94)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129쪽 참조.

95) 이처럼 드레스덴 유년시절에 살았던 집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려는 알프레트는 마치 그 장소에서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집과 가구들, 장식들을 생김새에서부터 정확한 위치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한편 이푸 투안은 위와 같이 과거에 살았던 집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거의 매혹적인 이미지는 바라볼 수 있을 뿐인 전체 건물에 의해서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주택의 구성요소와 설비(다락방과 지하실, 난로와 내달은 창, 구석진 모퉁이, 걸상, 금박 입힌 거울, 이 빠진 잔)에 의해서 환기된다.” 이푸 투안(구동회 외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32쪽.

위와 같이 드레스덴 유년시절의 집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려는 알프레트의 노력은 “토르너 가(街)의 재탈취”⁹⁶⁾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의존관계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그가 폭격으로 인해 붕괴되기 이전의 드레스덴의 집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지속된다.⁹⁷⁾

한편 발제가 주인공이 정체성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재구성의 대상으로 삼은 ‘행복했던’ 유년시절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치정권이 지배했던 시기에 해당하도록 설정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설정을 통해 나치과거사 수용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나치정권 당시 행해졌던 유대인 박해를 암시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독일민족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알프레트는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치정권지배하의 독일민족이 행한 유대인 박해를 인식한다. 그는 유대인을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충고를 떠올리다가 유년시절 한 유대인과 마주했던 에피소드를 기억해낸다. 그가 한 겨울 철로 작업을 하던 유대인이 잠시 쉬고 있을 때 “헤이, 유대인! He, Jude!”⁹⁸⁾이라고 말하자 그 유대인은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 당시 나치정권 주도하에 행해졌던 유대인 핍박에 동조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민족사회주의의 선전을 내면화한 나치였었다는 것을 고백한다.⁹⁹⁾ 즉 한 개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오히려 행복하기만 했던 유년시절이 역사적인 관점에

96) (DVK 269): “Zurückgewinnung der Throner Straße”

97)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집착’에 가깝게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녔던 알프레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에 치명적인 결함요소로 작용한다. 즉,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회상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노력에 방해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98) (DVK 308)

99) (DVK 308): “이 순간 그는 한 명의 나치였었다. In dieser Sekunde ist er ein Nazi gewesen.”

서 볼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었던 강압적인 시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발저가 모든 독일민족 전체를 일방적인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알프레트가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나치정권의 유대인 학살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을 도왔던 이른바 ‘착한 독일인’의 모습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대표적인 예로 알프레트의 부모님은 의사자격을 박탈당한 할프에델 박사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집을 제공하여 유대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¹⁰⁰⁾ 또한 그의 어머니가 드레스덴 폭격 당시 공습정보가 해제된 후 처음 만난 제복을 입은 수위에게 ‘히틀러 만세’라고 인사하며 자신은 맘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와 같이 인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독일 국민 모두가 나치정권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¹⁾ 오히려 발저는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정체성의 근원인 고향 드레스덴의 파괴를 겪은 알프레트에게 나타나는 정체성문제를 통해 독일민족 또한 나치정권과 이에 결부된 역사적 상황의 피해자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발저는 위와 같은 알프레트의 유년시절 회상을 통해 나치정권시대의 독일민족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양자의 측면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발저는 위와 같은 나치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알프레트라는 한 개인의 회상과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나치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민족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¹⁰²⁾ 알프레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 우연한 계기에 의해 유대인 박해와 관련된 유년시절의 에피소드를 떠

100) 이외에도 알프레트의 김나지움 재학 당시 친구였던 한스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고위 관리였던 또 다른 친구 데트레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101) 정향균: 결핍의 미학, 106-107쪽 참조.

102) 발저는 이미 「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았다 Auschwitz und kein Ende」(1979)를 통해서도 나치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은 민족차원에서의 집단적 반성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지닌 개인의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Vgl. Walser: Auschwitz und kein Ende. In: ders.: Deutsche Sorgen, S. 233.

올리게 된다. 그는 유대인을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의도치 않게’ 유년시절의 유대인 에피소드를 연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가 이러한 유대인과 관련된 유년시절의 에피소드들을 떠올리고 역사적 차원에서 재인식하는 과정도 어디까지나 알프레트라는 한 개인의 범위에서 다루어진다. 다시 말해 알프레트의 유년시절 회상에 나타난 과거 재인식은 발저가 비판했던 언론 매체들의 ‘강요된 도덕’에 기반한 과거사 서술¹⁰³⁾이 아닌, 그가 모범으로 삼았던 ‘정확성의 원칙’에 기반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과거사 서술인 것이다.¹⁰⁴⁾

한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알프레트의 노력은 ‘과거의 재구성’ 외에도 ‘현재상태의 보존’ 노력으로도 나타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법칙으로 인해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보존하려 하는 것이다.¹⁰⁵⁾ 그는 50세가 된 이후로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7년이 넘게 하루도 빠

103) 발저는 언론 매체들이 아우슈비츠 학살로 대표되는 나치정권시대의 유대인 박해에 있어 독일 민족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상징하고 학살의 잔혹함만을 부각시키며 무조건적인 반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강요된 도덕’에 반대하며 도덕적인 의도를 배제한 ‘순수한 기억’의 차원에서 역사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Vgl. Walser: Unser Auschwitz. In: ders.: Deutsche Sorgen, S. 190. 그렇다고 해서 발저가 민족차원에서의 집단적 반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괴테와 셸러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괴벨스와 힘러 같은 인물들도 독일민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독일민족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저는 이를 통해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를 혐오하고 희생자에게 공감을 포함으로써 잠재적인 가해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Ebd., S. 200.

104) 발저는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 범죄를 고발한 유대인 클렘퍼러의 글쓰기 방식을 자신의 리얼리즘 글쓰기의 모범으로 삼았다. Vgl. Walser: Das Prinzip Genauigkeit. Über Victor Klemperer. In: ders.: Deutsche Sorgen, S. 586. 한편 이와 같이 알프레트가 정체성확립의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난 과거 회상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재인식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갖는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05) (DVK 500): “과거를 물질화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은 현재가 지속되는 한 그것이 과거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현재를 적어도 문서화해서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바로 사라지지 않게 해야만 했다. Es genügte nicht, Vergangenheit dingfest zu machen. Die Gegenwart müßte man, solange sie währt, daran hindern, Vergangenheit zu werden. Sie wenigstens so dokumentieren, daß sie, wenn sie Vergangenheit wird, nicht sofort verschwinden kann ... Ihm sollte kein Datum mehr verlorengehen.” 이외에도 알프레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중에 그리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장들을 무엇이든 가장 가까이 있는 종이에 메모해서 서류철에 보관한다.

짐없이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일과와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한다.

5월 15일 금요일. 로테 고모가 깨움
판결에 대한 영화감정소 강연 준비.

[...]

22시 30분. 리하르트 전화, 자동차 보험, 뻘뻘해진다. 파르스 부인의 편지를 읽음.

Freitag, 15.5. Wecken durch Tante Lotte.

Vorbereitung des FBW-Vortrages über Rechtsprechung.

[...]

22 Uhr 30 Anr. Richard, Kfz.-Versicherung, wird keß. Frau Parrs Brief gelesen. (DVVK 500)

이때 기록되고, 지속적으로 읽힘으로써 그 내용의 영구화를 보장하는 문자의 속성은 알프레트의 기록행위를 뒷받침해준다.¹⁰⁶⁾ 이처럼 알프레트는 문자와 기록행위를 기억과 보존의 매체이자 수단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삶이 시간이 지나 과거가 되더라도 망각되는 과거가 아닌, 보고 기억함으로써 언제든지 재구성 될 수 있는 과거가 되도록 노력한다.

알프레트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과거재구성 노력을 과거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의 건립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시킨다.

누가 이 박물관을 방문할지에 대한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보존하는 것은 일종의 욕구이다. 모든 인간은 보존되려고 한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의) 박물관을 가질 가치가 있다.

106) Assmann: Erinnerungsräume, S. 182: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불멸의 속성은 지속적으로 읽힘으로써 영구화를 보장하는 기억매체로서의 문자가 지니는 특성을 통해 성립된다. Die Chance zur Abspaltung eines unsterblichen Teils der Person stellt sich mit der Schrift als einem Gedächtnismedium, das Selbstverewigung über kontinuierliche Lesbarkeit sichert.”

Die Frage, wer diese Museen besuche, ist nicht angebracht. Das Bewahren ist ein Bedürfnis. Jeder Mensch will bewahrt werden [···] Jeder Mensch verdient ein Museum. (DVK 320)¹⁰⁷⁾

알프레트는 자신만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행위를 통해 유년시절이라는 과거의 시간을 사물화·공간화시켜 되찾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보존함으로써 망각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박물관 프로젝트는 기억과 정체성을 둘러싼 인류의 근본적인 행위에 대한 기표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¹⁰⁸⁾

107) 알프레트는 ‘보존행위 Bewahren’를 본능에 기인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대상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성스럽게 다룬다. Vgl. (DVK 365-366): “그에게는 보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거기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는다. 그는 그냥 보관해야만 한다 [···] 그래서 그는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들이 마치 낯선 성스러운 것인 양 소중하게 다룬다. Ihm sei das Bewahren selbst das wichtigste. Darüber gebe es in ihm nicht den geringsten Zweifel. Er müsse einfach bewahren [···] Deshalb behandelt er seine Vergangenheitzeugnisse, als handle es sich um fremde Heiligtümer.”

108)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132쪽 참조.

2. 현실도피와 대체현실의 추구

2.1. 현실보상과 도피수단으로서의 예술

알프레트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이 그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법률가가 될 것을 강요한다.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사법고시에 두 번이나 낙방하고 내면적으로 결코 법률가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고통 받으면서도 서베를린으로 유학을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법률공부를 한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만 법학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알프레트는 일차적으로 예술가이고 그 다음에야 법률가이다”¹⁰⁹⁾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을 헨델, 괴테, 차이코프스키와 같은 예술가들에 비유하면서 자신도 그들처럼 법학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인본주의적이며 예술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특히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는 이와 같은 자기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 특히 음악을 자기정체성 확립의 수단으로 삼는다.

알프레트는 자신이 원치도 않는, 어머니로부터 강요받은 법학공부를 하기 위해 유년시절이 있던 고향 드레스덴을 떠나 낯선 곳 서베를린에서 유학생생활을 한다. 그곳에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집단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음악(예술)은 어머니와 더불어 유일한 안식처가 된다.¹¹⁰⁾ 그는 “사악한 오물덩어리”¹¹¹⁾라 느끼는 서베를린에서도 음악회에 참석하는 순간만큼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109) (DVK 113): “Alfred sei zuerst Künstler, dann erst Jurist.”

110) 알프레트는 서베를린 유학생생활 초기 사법고시 준비로 인해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 영화를 보러 간다.

111) (DVK 344): “ein böseartige Schmierstück”

알프레트는 음악회에 앉아 있을 때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음악을 듣자마자 다시 자신감을 가졌다. 음악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Als Alfred im Konzert saß, hatte er endlich wieder das Gefühl, mit sich selber übereinstimmen. Sobald er Musik hörte, traute er sich wieder etwas zu. Musik ist das Gegenteil von im eigenen Saft schmoren. (DVDK 46)

그에게 음악이란 다른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듣거나 직접 연주함으로써 평온함을 느끼는 안식처인 것이다.¹¹²⁾

그는 지금껏 자신을 압박해왔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예술성을 발현하고자 한다. 그는 그동안 법률공부로 인해 피아노 연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앞으로는 피아노만 칠 것이라고 다짐한다.¹¹³⁾ 피아노연주로 대표되는 그의 예술성 발현 시도는 앞서 살펴본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의 과거 재구성 노력과도 연관된다. 그는 한 때 후견인을 자처하며 돌보았던 동독 청년 리하르트와의 관계를 끊은 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그랜드 피아노를 살 것을 결심한다. 이 때 그는 유년시절 드레스덴의 고향집에서 연주하던 그랜드 피아노를 떠올리며 그것을 “과거의 생산물. 그의 유일한 자기실현의 가능성”¹¹⁴⁾이라 표현한다. 피아노 연

112) (DVDK 171):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인 것이, 알프레트에게는 음악이었다. Was für andere frische Luft war, war für ihn Musik.” 알프레트는 서베를린으로 대표되는 서독시민들에게서는 성과주의, 물질만능주의, 성(性)지상주의를 느끼고, 동독시민들에게서는 비효율성, 체제에의 복종 등을 보며 양측 모두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예술추구에 동조하는 라러 부인에게서는 인간성을 느끼며, 그녀를 유일한 인간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예술이 그에게 있어 근본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하지만 그는 이러한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도 법률관청에서 일을 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할뿐만 아니라,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그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 붓는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의 예술성(음악성) 추구가 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로서 완벽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4) (DVDK 487): “Die Produktion der Vergangenheit. Seine einzige Möglichkeit einer Art Selbstverwirklichung.”

주라는 예술성 추구와 더불어 유년시절에 연주했던 피아노라는 사물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편지 봉투를 봉할 때 혀로 침을 발라야할지의 여부조차 어머니에게 물어볼 정도로 판단력이 없지만,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내려야할 결정들은 매우 쉽게 내린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술 속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알프레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정체성 확립이라는 최종목표로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그에게 음악으로 대표되는 예술의 세계는 상처와 고독을 주는 현실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피안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¹¹⁵⁾ 그는 연극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보면서 자신이 다른 세계로부터 이해받았다고 느끼지만 곧 이 세계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임을 인식한다.

그는 무더위 속에서도 1마르크 50페니히를 주고 세탁한 하얀 셔츠를 입고 동독으로 가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감상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 세상. 틀림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은 충족되지 못했다. 화음은 그 욕망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에서의 체류를 단축시켜야만 했다.

Also ging er in der größten Hitze in dem für eineinhalb Mark präparierten weißen Hemd in die Ost-Oper und sah und hörte Tristan und Isolde und fühlte sich verstanden von einer Welt, die es nicht gab. Absolut nicht gab. Sicher nie gegeben hatte. Nach der aber ein Bedürfnis bestand. Das unerfüllt blieb. Das sagten die Akkorde. Unerfüllt bleiben würde in der existierenden Welt. Also war die unerträglich. Also mußte man den Aufenthalt hier abkürzen.

115) 정향균: 결핍의 미학, 96쪽 참조.

(DVKD 238)

그가 예술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그가 모범으로 삼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헨델, 피테, 차이코프스키와 같은 예술가들 외에도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트 3세, 루트비히 2세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와 같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왕들에 비유하는데, 이들은 모두 예술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알프레트와 공통점을 갖는다.¹¹⁶⁾이중에서도 특히 작센의 왕 아우구스트 3세와 루트비히 2세는 왕으로서 충실해야 할 국정운영을 소홀히 하고 예술에만 몰두함으로써 국력의 쇠퇴를 초래하는 등 현실에서 좌절된 인물들이다. 알프레트가 이러한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또한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의 예술적 성향이 현실과 상충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¹¹⁷⁾

또한 알프레트는 자신이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로서 어머니의 기대와 강요 외에도 자신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든다. 그는 자신이 지휘자가 되기에는 음악성이 너무 약하고,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너무 약한 신경을 지녔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한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의 예술적 성향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¹⁸⁾

116) 특히 알프레트가 ‘작센’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트 3세와 자신을 동일시 한 것은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와 연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117) 정향균: 결핍의 미학, 96쪽 참조.

118) 알프레트의 예술적 성향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 “알프레트는 이따금씩 그가 설정한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학에서 음악으로, 음악에서 역사 소설로, 소설에서 그 자신의 과거로 Manchmal kam es Alfred vor, als fliehe er vor dem Aufgaben, die er sich stellte. Von der Jura zur Musik, von der Musik zum historischen Roman, vom Roman zu seiner eigenen Vergangenheit.” (DVKD 227) 안테스-플로흐는 이와 같이 법학→음악→역사소설→과거 순으로 끊임없이 도피하는 알프레트의 삶을 도주의 연속으로 보았다. Anthes-Ploch: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S. 104: “근본적으로 그의 일생은 도주이다. Im Grund ist sein ganzes Leben eine Fluchtbewegung.”

2.2. 대체현실 추구를 통한 결핍 보상 시도와 그 실패

인류학의 역사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결핍의 존재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인 결점을 지녔지만, 이를 정신적인 능력으로 보완한다. 이에 대해 18세기의 철학자 헤르더는 그의 저서 『언어의 기원에 대한 글』에서 인간이란 동물적 본능의 결여를 이성과 자유라는 가치로 대체하는 ‘결핍의 존재 Mängelwesen’라고 규정지었다.¹¹⁹⁾ 발저의 작품들에는 이러한 ‘결핍의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일상적인 결핍에 대한 고백과 이를 보완하려는 욕구가 표현되어 있다.¹²⁰⁾ 이것은 알프레트에게 ‘부정(父情)’의 결핍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아들역할’의 결핍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알프레트는 성인이 되고나서, 특히 낮선 서베를린에서 외롭고 힘든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유년시절부터 지녔던 어머니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관계는 그녀가 죽고 나서도 그가 어머니의 묘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알프레트와 그의 아버지인 구스타프 도른의 관계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알프레트가 어머니를 안식처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로부터는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알프레트가 라이프치히에서 두 번이나 사범고시에 낙방한 이유가 국가가 요구하는 정치적 견해를 서술해야 한다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면서, 그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¹²¹⁾ 정치적인 측

119) Vgl. Johann Gottfried von Herder: Frühe Schriften, 1764-1772. In: Ulrich Gaier (Hrsg.): Deutscher Klassiker. Frankfurt a. M 1985, S. 695-810, hier S. 711.

120) Vgl. Jong-Dae Kim: Beschreibung der Alltäglichkeit. Eine Studie zur existenzialistischen Schreibweise bei Martin Walser. University of Oulu Finland 2005, S. 50f. u. Georg Braungart: “Ich habe nicht das Gefühl, daß ich mich bewegt hätte.” Martin Walsers ‘Wende’ zwischen Heimatkunde und Gesichtsgefühl., S. 95f: “내가 생각하기에 사방에 결핍이 있으며, 결핍이 있는 곳에서는 문학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문학은 언제나 충족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동기이다. Ich glaube, überall wo ein Mangel ist, wo nach ein Mangel ist, da wird Literatur von selbst erzeugt. Literatur hat immer ein erfülltes Bedürfnis, oder ein unerfüllbares Bedürfnis: Das sind so Anlässe für Literatur.”

면에서 볼 때 알프레트는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세금을 내고도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독 관료체제의 비효율성과 국가주도 계획경제에 익숙해진 동독 시민들이 자신들의 노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법조차 모르는 것을 보며 동독사회를 비판한다. 이러한 그와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 강제로 합당될 때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동독의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아버지의 충고와 예언은 알프레트에게 못마땅하게 느껴질 뿐이다. 더욱이 그는 알프레트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젊은 여자와 동거한다. 알프레트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젊은 동거녀에게 애정표현을 서슴치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낀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드레스덴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용돈의 액수를 줄이려고 하자 분노를 느끼며 어머니에게 그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¹²²⁾ 이후 알프레트는 동독의 불법이주민 재입국 금지령으로 인해 아버지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차단된다. 이와 같이 알프레트는 일생동안 부정의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¹²³⁾

121) 알프레트는 아버지가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존재했던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를 떠올린다. 그는 프리드리히 2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연약한 놈이라고 비난받았던 것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아버지의 비난을 극복하고 왕이 된 후에 수차례의 전쟁을 이끌며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루어 대왕으로 칭송받았던 프리드리히 2세와는 달리, 성인이 되고나서도 아버지의 예언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가 만든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에 고통 받는다.

122) 알프레트는 이미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언제나 둘 사이에 끼어 서로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행복한 결혼생활이었다 Bis die Kinder kamen, war das eine glückliche Ehe.” 라고 말하면서 부부사이에 끼어든 알프레트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알프레트의 반감은 그에 대한 경쟁의식과 대항의식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는 열쇠를 잃어버린 트렁크를 여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열어야만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는다. 또한 그는 “어머니에 반대할 수는 없다 [...] 하지만 아버지에 반대하기는 쉽다. Man kann nicht gegen die Mutter sein [...] Gegen den Vater sein ist leicht.”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정당화한다. (DVK 431 u. 511)

123) 라인홀트는 이러한 부정의 결핍이 알프레트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고 말한다. Vgl. Ursula Reinhold: Figuren, Themen und Erzählen. “Die Verteidigung

알프레트는 이러한 부정의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시도한다. 그는 드레스덴 중앙역에서 리하르트라는 동독의 한 고아청년을 만나 인연을 맺고, 그의 후견인을 자처한다.¹²⁴⁾ 그는 후견인이라는 명분하에 한 사람에게 보살핌을 베풀고 때로는 간섭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결핍상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리하르트가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의 일상생활에 간섭한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살 수 있게 돈을 부쳐달라는 리하르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리하르트에게 오토바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하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탈 때 뺨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스포츠맨처럼 점잖게 탈 것을 요구하는 등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섭을 하는 듯 대한다. 리하르트는 이러한 그의 간섭이 섞인 보살핌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한다. 알프레트 또한 이러한 그의 반응에 흡족해 한다.

알프레트는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 그는 지금까지 마주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청년을 대할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

Alfred erlebte direkt seine Wirkung auf diesen jungen Mann. Er wurde sicherer, als er je einem anderen Mensch gegenüber

der Kindheit” in ästhetischen, poetologischen und politischen Kontexten. In: Heike Doane u. Gertrud Bauer Pickar (Hrsg.): Leseerfahrungen mit Martin Walser. Neue Beiträge zu seinen Texten. München 1995, S. 198.

124) 작품 첫 장면에서 알프레트가 아버지와 작별을 하는 곳 또한 드레스덴 중앙역이다. 우르줄라 라인홀트는 드레스덴 중앙역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의 작별이 알프레트에게 있어 유년시절과의 단절이자 앞으로 지속될 그의 실패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장소의 재등장이 알프레트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알프레트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Vgl. Reinhold: Figuren, Themen und Erzählen, S. 202.

gewesen war. (DVVDK 459)

그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함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¹²⁵⁾ 아버지 역할 수행에 만족감을 느낀 알프레트는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그를 ‘교육’하려 한다. 그는 리하르트를 베를린의 박물관에 데려가 페르가몬 제단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리하르트 또한 그 영웅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¹²⁶⁾ 이 때 중요한 것은 페르가몬 제단이 알프레트에게 지니는 의미이다. 앞서 알프레트는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유년시절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페르가몬 제단의 발굴작업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페르가몬 제단을 리하르트에게 소개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리하르트에 대한 그의 아버지 역할 수행이 부정의 결핍에 대한 보상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그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리하르트는 알프레트와 함께 페르가몬 제단의 전시를 보고 난 후, 그에게 제단은 자신의 취미가 ‘전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정체성 확립 시도에 참여시키려는 알프레트의 노력을 좌절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알프레트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의 또 다른 시도인 예술(음악)성 발현에 리하르트를 동참시키려는 과정에서 반복된다. 그는 프리베에게 자신의 피후견인을 청소년 음악 클럽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프리베는 리하르트를 “사기꾼 Ganove”, “부끄러운 줄 모르는 괴짜 hemmungsloser Exzentriker”¹²⁷⁾에 비유하면서 화를 내고 그의

125) 앞서 살펴본바 있듯이 알프레트는 치과의사 선택, 허로 침을 발라 편지봉투를 붙이기 등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진로설정에 이르기까지 예술성에 대한 추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126) 알프레트는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때 그녀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었다. 그가 전적으로 의존했던 어머니에게 했던 설명을 리하르트에게 똑같이 되풀이 한다는 점에서도 리하르트에 대한 그의 의존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어머니는 자신의 제단을 순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리하르트는 아직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흡사 그가 라이프치히에서 사법고시를 치를 때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경제계획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라고 충고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프레트가 리하르트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 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가입을 거절한다. 또한 그는 알프레트에게 리하르트를 돕는 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알프레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리하르트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에 반대한다. 그들은 알프레트가 리하르트를 돕지 않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알프레트의 정신과 주치의인 드 본 박사는 리하르트와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알프레트와의 우정을 단절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다. 알프레트는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리하르트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중단한다. 이로써 부정의 결핍을 보완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의 시도로서 수행되었던 알프레트의 ‘아버지 역할’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¹²⁸⁾

알프레트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결핍은 ‘아들역할’의 상실이다. 그는 부정이 결핍된 채 어머니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낯선 서베를린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이성교제도 하지 않았던 그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애인의 역할을 부여한다. 또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거재구성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여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알프레트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알프레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정체성 확립을 시도한다. 그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아들의 역할을 일종의 숭배로 표현한다.

알프레트는 숭배하기를 즐겼다. 그는 누군가를 숭배하면 자신이 더 생기 있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충일감이었다.

127) (DVK 465 u. 466)

128) 이러한 알프레트의 실패는 그와 리하르트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적인 특성에서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적인 것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그와는 달리 리하르트는 알프레트가 자신을 테리러 오기 전까지 섹스영화를 상영하는 성인영화관에서 기다리는 등 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알프레트가 드레스덴 유년시절의 사진이나 집기 등을 수집하며 과거를 재구성 할 때나 예술을 감상하고 실천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과 달리 리하르트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 했던 점에서도 위와 같은 그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lfred verehrte gern. Er fühlte sich lebendiger, wenn er verehrte.
Es war der ihm liebste Überfluß. (DVK 207)

그는 위와 같이 숭배로 표현된 아들역할 수행을 통해 정체성 확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자존감을 느끼면서 아들역할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라고 고백한다. 즉 그에게 있어 아들역할의 수행은 일종의 정체성 확립의 수단인 것이다.¹²⁹⁾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아들역할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숭배의 대상이 사라져 버린 이상 그 자신도 더 이상 숭배행위의 주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 대한 숭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어머니의 묘지관리, 특히 그곳에 세워질 묘비제작에 매우 집착하면서 자신의 아들로써의 역할을 지속시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의 묘비를 보고도 그녀를 떠올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그녀를 기념할 수 있는 화려한 묘비를 세우려 한다. 이때 그는 빗을 내는 등 경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제쳐두면서까지 묘비에 새겨질 문양과 문구¹³⁰⁾를 직접 도안하기도 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을 보며 기념비 제작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도 하지만, 곧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nur für sich selber”¹³¹⁾

129) 이것은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신의 어머니로 상정한 사람이 친모가 아닌 벨리 파르가멘트라는 다른 여자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어머니의 존재보다는 어머니가 존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아들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DVK 340): “그는 무엇보다도 하이파에 있는 벨리 페르가멘트에게로 가고 싶었다. 그녀의 침대에는 분명히 아들이 없을 것이다. 아들역할 수행자.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하는 직업일 것이다. 만약 이런 형태의 매춘이 있다면, 그는 즉시 그것을 취했을 것이다. Am liebsten wäre er nach Haifa geflogen zu Nelly Pergament. An deren Bett fehlte offenbar ein Sohn, Sohndarsteller, das wäre sein Lieblingsberuf. Wenn es diese Form der Prostitution gäbe, würde er zugreifen, sofort.” 이외에도 안데스 플로호는 이 문장에 알프레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인 직업선택과 정체성의 문제가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Vgl. Anthes-Ploch: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S. 99.

130) 알프레트는 어머니의 묘비에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어린양을 새긴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에 새겨진 어린양을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희생당한 어린양 *Das Lamm, welches geopfert wurde, weil es selbst wollte.*”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가 스스로 아들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수반된 희생을 통해 그 역할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DVK 382)

이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의 노력을 정당화한다. 그의 어머니 숭배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그가 타인의 평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 누군가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먼저 상대방에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¹³²⁾라고 묻는다. 그는 이어서 아들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역할수행에 대해 ‘인정’을 받고 나서야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자기만족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서도 스스로에게 부여한 아들역할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또 지속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부여한 아들역할을 지속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가 아들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로테 고모, 필츠 부인 등 여러 명의 대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들과 교류한다. 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의존관계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죽은 어머니의 묘지와 묘비에 집착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어머니-숭배 MUTTER-KULT”¹³³⁾도 1964년, 그가 비스바덴으로 이사함과 동시에 끝나게 된다.¹³⁴⁾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역할이 결여된(결여될 위기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대체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정체성 확립에의 기여라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131) (DVDK 391)

132) (DVDK 301): “Was habe ich falsch gemacht?” 알프레트는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DVDK 288): “제가 뭘 잘못했나요? Habe ich etwas falsch gemacht?”

133) (DVDK 299)

134) 알프레트는 비스바덴으로 이사 간 뒤부터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역할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정체성, 정치적 견해로 인한 사회부적응 등 다른 종류의 비정상성을 보인다. 또한 나중에 알프레트가 베를린에 있는 어머니의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가 자신의 상징물로서 묘비에 새겼던 어린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점도 그가 어머니숭배를 통해 아들역할을 지속시키려 했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Ⅲ.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회복 : 작가의 분단관 및 통일관

1. 민족적 현실과 개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프레트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유아기적 특성을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남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정체성을 지니지도 못한다. 또한 그는 서베를린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곳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과거재구성, 예술성 추구, 아버지와의 아들역할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이것마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알프레트의 비정상성과 정체성확립 시도의 실패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독일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³⁵⁾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 즉 그가 속한 국가(민족)의 사회적 현실과 연관되어 그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내용적, 구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발저의 창작성향을 통해 뒷받침 된다.

『유년시절의 수호』에는 20세기 독일이 겪은 주요사건들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알프레트의 비정상성과 불안정한 정체성은 드레스덴 폭격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1945년 2월 13일부터 3일간 지속된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 그는 조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된다. 하지만 드레스덴 폭격은 그에게 단순히 지인들의 상실을 넘어 한 개인의 정체성의 근

135) Vgl. Mathäs: Copying Kafka's Signature-Martin Walser's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In: *The Germanic Review*. Bd. 69. (1994), S. 81.

원인 고향의 상실로 나타난다. 또한 드레스덴 폭격은 망각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 그의 삶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는 상수시 궁전이 화재로 인해 손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느낀다.

지하에 있는 국영매점에 불이나 북쪽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소식은 알프레트에게 일종의 쇼크로 작용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상실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상실과 관련한 소식을 접하면 그것을 조금도 외면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위로도 없었다. 그 어떤 고통의 분담도, 그 어떤 의미도 없었다. 9년 전의 공습 때부터 말이다. 나중에 그가 드레스덴의 옛 거리를 찾았을 때 이러한 충격이 나타났다.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 그 어떤 상실도 과거의 상실만큼 상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지는 않는다.

In den Kellern hatte ein HO-Lager Feuer gefangen, der Nordflügel soll zerstört sein. Auf Alfred wirkte eine solche Nachricht wie ein Schock. Er hatte das Gefühl, als könne er überhaupt keinen Verlust mehr verkraften. Er konnte, wenn ihm die Verlustnachricht traf, kein bißchen ausweichen. Es gab keinen Trost. Keine Schmerzverteilung. Keinen Sinn. Seit dem Angriff vor neun Jahren. Nachträglich, als er die alten Straßen suchte, hatte sich dieser Schock eingestellt. Es bildete sich eine Verlassenheitsempfindung. Durch keinen Verlust wird Verlust so deutlich wie durch Vergangenheitsverlust. (DVKD 84-85)

이전에는 그의 고향 드레스덴과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않았던 상수시 궁전이 단지 ‘파괴’ 되었다는 이유에서 그에게 9년 전의 드레스덴 폭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폭격을 당시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는 점은 폭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더욱 강렬하게 각인시킨다.¹³⁶⁾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한 고향상실은 이후 그가 겪는 모든

136) 아스만은 전쟁으로 인해 한 개인에게 각인된 트라우마가 신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직, 간접적인 상실(또는 무언가를 상실한 위기)의 시발점이 된다. 실제로 그는 고향상실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결별하고, 성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피해는 바로 그가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를 뒤에 남겨 놓고 삶에 충실하라는 강요였다. 삶, 이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제들의 조합이었다. 미래는 그에게 점점 참을 수 없게 된 현재의 연속일 뿐이었다.

Gegenwart-, das war für ihn der Zwang, die Vergangenheit zurückzulassen, sich dem Leben zuzuwenden. Leben-, das war eine Zusammenstellung von Aufgaben, die ihm nicht lagen. Zukunft war für ihn nur eine ins Unerträgliche gesteigerte Fortsetzung der Gegenwart. (DVDK 198)

과거 유년시절에 각인된 드레스덴 폭격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한 나머지 그가 충실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과거와 맞서는 대립개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재와 속하게 될 미래에 대한 위와 같은 반감은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방향설정을 불가능하게 한다.¹³⁷⁾ 이러한 부적응과 방향상실은 탈모, 치통, 피부질환과 같이 신체적 이상 징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작가는 그것의 궁극적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1945년 2월 13일. 그날은 언제나 그가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날이었다.

Der 13. Februar 1945. Das war immer der Tag, in dem er landete.
(DVDK 198)

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Vgl. Assmann: Erinnerungsräume, S. 278.
137)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127쪽 참조. 이에 대해 말저는 한 인터뷰에서 알프레트에게 있어 (현재의) 삶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Walser: Kindheit nach dem Tode, Die Zeit(9 August 1991): “알프레트는 현재와 미래에 맞서 유년기를 수호해야만 한다. 그는 삶에 저항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Alfred muß die Kindheit verteidigen gegen Gegenwart und Zukunft. Er wehrt sich gegen das Leben, weil es zum Tode führt.”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폭력은 알프레트에게 심리적, 정신적 중압감을 주는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트라우마는 그에게 정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의 주된 테마 중 하나인 알프레트 도른의 고향상실과 이와 결부된 유년시절의 상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정상성은 치유되지 않는 역사적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⁸⁾

드레스덴 폭격이라는 과거의 체험이 알프레트에게 전쟁의 트라우마로 영향을 미친다면, 독일의 분단은 현존하는 사회적 현실로 그의 삶에 개입한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알프레트에게는 어머니와의 비정상적인 상호의존관계가 나타난다. 유아적인 그가 뉘른베르크에서 외로운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위로로 삼는 것은 어머니와 주고받는 편지와 소포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자기위안수단들은 냉전체제하에 강요된 동서분단이라는 독일사회의 현실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빨래를 직접 하지 않는다. 대신 소포를 이용하여 그것들을 동독지역의 드레스덴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면 어머니가 대신해서 빨래를 하고 다시 소포를 이용하여 그에게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때 어머니는 세탁물뿐만 아니라 홀로 유학생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줄 각종 음식, 선물을 동봉하기도 하는데, 그는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기뻐하고 자신의 아들역할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소포교환은 동서독의 갈등관계로 인해 중단된다. 그는 어머니에게 빨래감을 보낸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 뉘른베르크 국경에 있는 동독의 우체국에 간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확인한다.

138) 페츠는 20세기의 후반에 살고 있는 많은 독일인들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그들의 고향과 그곳에서의 추억(유년시절)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알프레트의 고향상실이 독일국민의 거대한 운명을 보여준다는 발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Vgl. Gerald A. Fetz: Martin Walser. Stuttgart u. Weimar 1997, S. 143.

독일민주공화국=민주주의 영역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운송로 및 그 반대방향의 운송로에서 가족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uf den Transportwegen DDR=DS nach Westberlin sowie in umgekehrter Richtung ist der Versand von Familiensendungen unzulässig. (DVK 146)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소포를 주고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1957년 12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동독 탈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어머니와의 만남 및 연락은 더욱 제약받게 된다. 이 법률은 1949년에서 1957년 사이에 불법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동독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알프레트의 서베를린으로의 유학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동독주민이 서독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서베를린을 방문 역시 위협받게 된다.

또한 분단의 역사는 알프레트가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때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는 서베를린에서 사범고시에 합격한 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한다. 그 중 그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은 바로 드레스덴에서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재구성하려는 유년시절은 바로 1945년 2월의 드레스덴 폭격이 있기 전, 즉 전쟁트라우마가 각인되기 이전의 ‘행복했던’ 유년시절인데, 이를 위해 그는 그 당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집하려고 한다. ‘페르가몬 유적 발굴 프로젝트’에 비유되는 그의 유년시절의 재구성은 초반에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다. 그는 드레스덴에 있는 친, 인척들과 서베를린에서 함께 공부를 하지만 자신처럼 불법탈주자의 동독재입국 금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 유년시절의 사진을 수집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간다.

8월 13일에 그들은 모든 틈새를 막아버렸다. 처음에는 철조망을 설치 하더니, 나중에는 담장과 기계장비를 설치했다. 이제 (동독을) 도망치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 드레스덴은 멀어졌다.

Und am 13. August machten die überhaupt dicht. Zuerst mit Stacheldraht, dann mit Mauern und technischen Feinheiten, daß, wer jetzt noch fliehen wollte, sein Leben risikierte [...] Dresden war fort. (DVK 318)

그의 유년시절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드레스덴의 집의 재구성이다. 그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세간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체를 그가 살고 있는 현재 서베를린으로 데려옴으로써 행복했던 자신의 유년시절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의 서독행을 합법적인 국외여행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의 등장으로 그녀의 서독행은 무산되고 만다.¹³⁹⁾

위와 같이 2차 세계대전 때 행해진 드레스덴 폭격 그리고 전후에 이어지는 독일의 분단 등 알프레트의 과거재구성 노력이 그가 속한 독일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직면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학적 기억이기도 함을 주장한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의 이론으로 뒷받침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그것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이든 늘 집단적이다. 또한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은 다양한 집단의 관점을 벗어나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개인적인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창적인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¹⁴⁰⁾ 또한 그는

139) 후에 동독 정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고 싶다는 알프레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녀의 서베를린 행을 허가한다. 하지만 이때 그녀가 드레스덴의 집에서 사용하던 짐기들을 가져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베를린으로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어머니를 자신의 박물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여겼던 알프레트에게 그녀의 죽음은 치명적인 결함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그의 유년시절 재구성은 실패로 돌아간다.

140)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조르쥬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실린 곳: 한국사회학 제45집

집단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기억은 그가 속한 집단이 겪고 있는 현실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기억은 계속해서 되살려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감이 지속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기억은 우리 생애의 다른 시기마다 다른 개념에 종사하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와 외관을 잃게 된다. 어떤 일에 대한 원래의 인상이 지니고 있던 실질은 상실되고 현재의 사회가 부과하는 형태만 보유하게 된다.¹⁴¹⁾

알프레트의 과거재구성 노력이 드레스덴 폭격과 분단된 동서독의 정치적 긴장관계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¹⁴²⁾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삶과 과거재구정으로 대표되는 그의 정체성 확립 시도가 그가 속한 집단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을 다루는 발저의 관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앞서 언급된 동서독의 정치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조치들 뿐만 아니라 1954년과 1955년에 있었던 동, 서독 외무장관 회의, 동독주민의 집단탈주 등 동서분단에서 비롯된 각종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 또한 언급된다. 발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닌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¹⁴³⁾ 즉, 독자로 하여금 실제 그 사건이 지나는 정

(2011), 235-236쪽 참조.

141) Maurice Halwachs: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University of Chicago 1992, S. 40.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실린 곳: 사회과학연구 제6집(1999), 579쪽에서 재인용.

142) 또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과거를 기억해내려는 행위는 과거 자체를 파괴하거나 그것을 현재의 목적에 따라 왜곡시킬 뿐이라는 발저의 견해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 작품 속에서 알프레트는 순수한 과거 회상이 목적이 아니라 폭격으로 파괴되기 이전의 드레스덴 유년시절을 재구성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를 기억해내려 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재구성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향균: 기억의 도구화에 대한 저항.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 문학 제21집(2003), 539쪽 참조.

143) Mathäs: Copying Kafka's Signature, S. 79: “발저는 언제나 단순한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그 사회가 한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의 소설의 중심에서 해체되어버린 개인은 사회상을 반영한다. Walser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society's impact on the individual's psyche rather than a mere rendering of society itself. The deformed individuals at the center of his novels reflect society's condition.”

치적인 쟁점이 아닌 오로지 그것이 알프레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프레트는 위에 언급된 각종 사회적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 오직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¹⁴⁴⁾

하지만 이미 종종 그래왔듯이, 세계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를 좌절 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Aber wie schon öfter tat die Weltgeschichte alles, das Wiedersehen zwischen Mutter und Sohn zu vereiteln. (DVVK 205)

이처럼 그에게 냉전 체제하의 양대 세력의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사는 자신과 어머니의 만남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로서의 드레스덴 유년시절 재구성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¹⁴⁵⁾

이와 같은 사항은 서술시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확고해진다. 서술형식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알프레트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이를 받아들이는 그의 내면심리가 행위자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표현, 즉 인물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점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는 인물의 시점이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알프레트가 드레스덴 폭격, 분단, 동독재입국 금지, 베를린 장벽의 건설 등 작품에 제시되는 주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알프레트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

144) 작품에는 위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反戰) 시위, 서독에서의 사회주의당 활동 금지, 아우슈비츠 관련 소송, 대규모 실업 사태 등 알프레트 생애 당시 독일의 사회적 쟁점들이 언급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그의 비정상성 그리고 정체성 확립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 분단을 강조하기 위해 반(半)문장 혹은 단어형식으로 간략하게 언급된다. Vgl. Anthes-Ploch: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S. 92.

145) 라인홀트는 발저가 독일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을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점이 분단상황이 한 개인에게 강요하는 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였다. Vgl. Reinhold: Figuren, Themen und Erzählen, S. 200f.

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¹⁴⁶⁾ 이와 같은 시점의 혼용을 통해 발저는 국가분단이라는 집단의 역사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¹⁴⁷⁾

브뤼백작과 재단사의 일화는 이와 같은 집단(국가, 민족)과 개인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킨다. 아우구스트 대제 때 수상을 지낸 브뤼백작은 자신을 연회에 참석시켜 달라는 재단사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재단사는 손수 만든 연회복을 입고 연회에 참석한다. 자리를 안내받은 재단사는 자신의 식기 앞에 놓인, '숫염소를 타고 가는 재단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자기 세트에 실제로 숫염소를 타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던 귀족들은 이 그림을 금방 인식하였고, 재단사 역시 그것을 눈치 채고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알프레트가 이 일화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재단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다.

알프레트는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의 추락을 장대한 스케일의 구성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 그 역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146) 사회적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알프레트의 내적세계의 진상규명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의도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Reinhold: Figuren, Themen und Erzählen, S. 197f: "이 소설에서 발저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주인공들의) 반응을 통한 내적세계의 정확한 진상규명은 역사적인 범위로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확장은 서술기법상 인물시점의 강하고 느슨함 사이에서의 변동을 통해 표현되었다. Doch die für Walser Romane charakteristischen Vorzüge, die genaue Ausleuchtung der inneren Welt in ihrer Reaktion auf gesellschaftliche Gegebenheiten, verbinden sich hier mit einer Erweiterung des historischen Horizonts, der sich erzähltechnisch im Fluktuieren zwischen engerer und weiterer Figurenperspektive ausdrückt."

147) Reinhold: aa.O., S. 212: "이 작품에서 서술된 일대기는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 즉 독일의 고통을 예적으로 제시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해체과정을 통해, 그의 결함, 교체능력 상실 그리고 파괴된 드레스덴이라는 근원에 대한 고수를 통해 상실의 거대함에 대한 예감을 전달한다. 이것은 동시에 서술자 발저의 의도이기도 하다. Die erzählte Biographie stellt das Leiden an der Spaltung des Vaterlandes, das Leiden an Deutschland exemplarisch vor. Der Roman vermittelt in den Deformationen des Protagonisten, in seiner Bindungs- und Beziehungslosigkeit und dem sehnsüchtigen Festhalten von Spuren des zerstörten Dresden eine Ahnung von der Größe des Verlustes. Das ist zugleich die Intention von Walsers Erzähler."

Alfred war sicher, daß die Anekdote auf einen wirklichen Vorfall zurückging. In einer großen Komposition wollte er den Sturz dessen zeigen, der über sich hinaus will [...] Über sich hinaus wollte er auch. (DVKD 213)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재단사뿐만 아니라 브뤼백작의 운명에도 비유한다. 브뤼백작은 선왕의 실정으로 국력이 약해진 아우구스트 3세 시절 작센왕국의 재상으로, 왕을 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이센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부국강병을 꾀한다. 하지만 그는 영토를 둘러싼 쉘레지엔과의 전쟁에서 잇달아 패배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조국 작센의 멸망도 초래하고 만다. 즉 그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마는 ‘실패한 인물’의 전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알프레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현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⁴⁸⁾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정체성의 미확립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것을 암시한다.¹⁴⁹⁾ 나아가 알프레트가 자신과 동일시 한 브뤼백작, 재단사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아우구스트 3세가 모두 ‘작센’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은 개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상관관계를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알프레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작센인이라는 것에 긍지를 가졌는데 이는 발저가 주장한 민족의 핵심요소인 ‘구성원의 소속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아우구스트 3세-재단사-브뤼백작으로 이어지는 ‘작센적인 주제 sächsisches Thema’¹⁵⁰⁾에 자신의 정체성을 기댄 것이다.

이와 같이 발저는 작센의 인물인 아우구스트 3세-재단사-브뤼백작

148) 정향균: 결핍의 미학, 105쪽 이하 참조. 또한 이 글에서 정향균도 브뤼백작과 재단사의 일화 및 브뤼백작의 운명을 알프레트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149) Vgl. Mathäs: Copying Kafka's Signature, S. 83.

150) (DVKD 213)

그리고 신화 속 인물인 벨레로폰¹⁵¹⁾ 일화를 자기에게 투영한 알프레트의 모습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집단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 사이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강조한다.¹⁵²⁾

151) 알프레트는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향해 돌진하려다가 신들의 미움을 사 추락하고 만 신화 속 인물 벨레로폰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한다.

152) 발저는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 집단적 소속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족적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만큼이나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Vgl. Walser: *Deutschländer oder Brauchen wir eine Nation? Ein Gespräch über Staaten, Nation, Heimat und Literatur*. In: ders.: *Deutsch Sorgen*, S. 268.

2. 통일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작가는 이 작품에서 독일의 분단문제를 단순히 추상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집단의 구성원인 한 개인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제시하였다. 즉, 알프레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정상성과 정체성 확립시도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핍의 상황이 아닌 그가 속한 집단(독일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결핍과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¹⁵³⁾ 이와 같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정체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작품의 결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집필 당시 독일민족이 안고 있던 분단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프레트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결핍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독일 분단이 극복되기 3년 전인 1987년,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이 집단의 운명과 정체성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작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주인공의 삶을 미완성으로,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분단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이 작품이 독일통일 이후에 출판되었다는 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저는 여러 연설문, 담화, 인터뷰 등에서 다음과 같이 분단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파국의 산물이며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독일의 역사를 - 비록 그것이 결과적으

153) 정항균: 결핍의 미학, 105쪽 참조.

로 매우 나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 파국의 산물로 끝나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 내가 하는 말의 대답함에 떨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우리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서독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독일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Daß es diese zwei Länder gibt, ist das Produkt einer Katastrophe, deren Ursachen man kennen kann. Ich halte es für unerträglich, die deutsche Geschichte - so schlimm sie zuletzt verlief - in einem Katastrophenprodukt enden zu lassen [...] Wir dürften, sage ich vor Kühnheit zitternd, die BRD sowenig anerkennen wie die DDR. Wir müssen die Wunde namens Deutschland offenhalten.¹⁵⁴⁾

나는 그저 이 나라의 분단에 익숙해 질 수 없었고, 한 나라 전체의 역사가 파국의 산물로 끝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무대 위에서도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Ich habe mich einfach nicht an die Teilung dieses Landes gewöhnen können un konnte mir nicht vorstellen, daß die Geschichte eines ganzen Landes in einem Katastrophenprodukt enden soll. Das ist doch sehr unbefriedigend. Das möchte man weder auf dem Theater noch in der Wirklichkeit ertragen müssen.¹⁵⁵⁾

위와 같이 발저는 독일의 분단상황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파국의 산물로 인식한다. 또한 그는 동서독의 경계를 ‘제정신이 아닌, 우둔한 그리고 억지스러운 것’¹⁵⁶⁾이자 ‘역사의 해체’¹⁵⁷⁾로 여기며 독일의 분단

154) Walser: Über Deutschland reden, S. 416f.

155) Walser: Das Gejammer über die Zukunft der deutschen Literatur finde ich absurd. In: Franz Josef Görtz, Volker Hage u. Uwe Wittstock (Hrsg.): Deutsche Literatur 1994. Jahresüberblick. Stuttgart 1995, S. 303-309, bes. S. 303. 권선형: 마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정체성』에 나타난 전후 독일사회의 조망과 통일독일의 미래상, 134쪽에서 재인용.

156) Walser: Deutsche Sorgen I.. In: ders.: Deutsch Sorgen, S. 435: “Die deutsch-deutsche Grenze war und ist eine verrückte, blödsinnige, künstliche Linie.”

157) Walser: Über den Leser - soviel man in einem Festzelt darüber sagen soll. In: ders.: Wer

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발저의 분단상황 인식은 알프레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치른 사범고시 구두시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자 연합군의 수뇌부였던 처칠이 알타회담에서 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면접위원들이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답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후 국제질서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한 알타회담의 결과로 바로 독일의 분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드레스덴 폭격, 동서분단과 같은 독일 민족의 역사적 상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알프레트에게 있어 치통, 탈모, 구강염 등과 같은 신체적인 결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구강염으로 인해 아픈 입으로 독일분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독일분단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폐해를 동시에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¹⁵⁸⁾ 이처럼 발저와 알프레트가 독일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모두가 독일의 분단을 독일국민의 의지가 아닌 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발저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 3제국의 국제적 범죄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로서 독일민족에게 가해진 분단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분단이 일종의 처벌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독일이 더 이상 처벌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¹⁵⁹⁾ 그

ist ein Schriftsteller? Aufsätze und Reden. Frankfurt a.M. 1979, S. 99: “Liquidierung von Geschichte”

158) (DVDK 57): “예를 들면 처칠은 알타회담에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알프레트는 기대되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독일을 다섯 개의 독립구역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프레트는 이러한 대답을 자신의 아픈 입술에 담는 것에 실패했다. Was hat, zum Beispiel, Churchill in Jalta gewollt? Alfred kannte die erwartete Antwort: Deutschland in fünf selbständige Teile spalten. Alfred schaffe es nicht, diese Antwort über seine sowieso schon schmerzenden Lippen zu bringen.”

159) Walser: Über Deutschland reden, S. 412: “내가 알타회담과 테헤란회담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들을 처벌행위라고 부르는 것 [...] 처벌행위는 속죄가 아니라 교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교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동독과 서독에는 그 어떠한 퇴보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Daß ich Jalta, Teheran und die Folgen Strafaktion nenne [...] Strafe dient nicht der Sühne, sondern doch wohl der Resozialisierung. Fühlen wir uns nicht resozialisiert? In Ost- und Westdeutschland kein Anzeichen irgendeiner Rückfallmöglichkeit.”

는 이와 같이 정당성을 상실한 처벌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독일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라는 것을 강조한다.

(동서독에) 퇴보의 위험이 없다면 [...] 그렇다면 분단상황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단 하나의 동기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외국의 이해관계이다 [...] 이러한 핑계 하에 독일의 분단을 그대로 지속시킨 것은 외국의 이해관계이다.

Also, wenn die Rückfallgefahr ausgeschlossen ist [...] , dann gibt es nur ein Motiv für die Fortsetzung der Teilung: das Interesse des Auslands [...] Es ist das Interesse des Auslandes, unter diesem Vorwand die deutsche Teilung ungemildert zu erhalten.¹⁶⁰⁾

이와 같은 분단의 발생과 지속됨의 원인에 대한 발저의 견해는 알프레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는 어머니가 자유롭게 서베를린을 출입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되고 그 결과 독일분단의 발생과 지속원인을 인식하게 된다. 그가 보기에 독일의 분단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이와 대립되는 상대방의 의견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귀머거리 증상 Taubheit”, “자기귀막기 Selbstbetäubung”¹⁶¹⁾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냉전’이라는 국가 간의 이념대립, 이해관계의 대립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이와 같이 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요된’ 피해인 분단을 종교전쟁 당시의 독일에 비유하기도 한다.¹⁶²⁾

160) Walser: Über Deutschland reden, S. 412-413. 여기서 말하는 ‘퇴보의 위험 Rückfallgefahr’이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의 호엔촐러른 왕가시대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의 나치시대의 독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161) (DVKD 139)

162) 종교전쟁 당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약소국 독일은 종교적 가치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경쟁국가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30년간 지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은 1871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기전까

분단에 대한 발저의 인식은 위와 같은 원인규명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작품에서 알프레트의 ‘개인적 결핍’이자, 나아가 독일민족의 ‘집단적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단과 그로 인한 각종 피해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의 통일이다. 작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비록 알프레트라는 한 인물의 비정상성과 정체성에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것Privates’이라 할 지라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가 속한 집단이 겪는 문제, 즉 분단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저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연설, 담화 등 다양한 문학 외적인 활동을 통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계는 냉전체제의 두 대립축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써 이들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통일독일보다 더 큰 위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유럽에서는 더 이상의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³⁾ 두 번째 당위성은 앞서 언급한 분단원인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분단 자체가 독일민족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존재해야만 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민족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은 민족적 결핍이자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¹⁶⁴⁾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통일은 평화를 위협하는 위협요소가 아

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전쟁 이전의 상태보다 더 많은 중소국가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발저 또한 독일의 분단의 원인이 냉전이라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강대국들 사이의 이념대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종교전쟁에 비유한다. Walser: Deutsche Sorgen I., S. 435: “냉전은, 예를 들면 30년 전쟁의 현대 버전인 셈이었습니다. Der Kalte Krieg war unsere zeitgenössische Version der früheren Religionskriege, also das Dreißigjährigen, zum Beispiel.”

163) 발저와 달리 그라스로 대표되는 독일의 좌파지식인들은 통일독일에 잠재된 전쟁의 위협성을 근거로 통일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제 2, 제 3제국으로 불리는 통일독일이 1871년부터 1945년까지 한 세기도 되지 않는 75년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규모 학살 등 수많은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통일독일의 재등장은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Vgl. Walser: Über Deutschland reden, S. 409f.

나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일인이 지녀야 할 신념이자 독일이 지난 75년간의 범죄에 대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¹⁶⁵⁾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근본원인인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1987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체성확립 시도의 실패를 독일민족의 정체성확립의 실패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작가가 이 작품을 독일통일 이후인 1991년에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발저는 통일의 문제점과 폐해를 근거로 통일에 반대하는 일부 좌파지식인들과는 달리 분단의 문제점들을 인식시키고 그것의 폐해를 강조함으로써 현재(출판 당시) 이루어진 통일을 옹호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⁶⁶⁾ 즉, 정체성문제의 근본원인이었던 분단이 통일을 통해 극복됨으로써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들 또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밑바탕이 마련된 것이다.¹⁶⁷⁾ 이와 같이 발저는 『유년시절의 수호』를 통해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정체성문제의 원인

164) 위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발저의 주장과 이에 대한 통일반대론자들의 반박, 다시 이에 대한 발저의 반박 등 발저를 중심으로 일어난 독일지신인들의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정향균: “나는 변하지 않았다.”.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8집(2008), 194-197쪽 참조.

165) Walser: Zum Stand der deutschen Dinge. F.A.Z(5 Dezember 1989): “군사블럭들의 해체와 양독 사이의 경계선의 해체는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어야 할 것이다 [...] 독일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수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통일을 통한)평화가 완성되어 평화로 가득 찬 독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고난이 다만사인 이 세계를 위해 (통일)독일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창작과 비평사 1991, 87쪽에서 재인용.

166) 정향균: 결핍의 미학, 114쪽 참조. 발저는 통일 이후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통일 탓으로 돌리는 비관주의적 태도에 반대하며 통일을 옹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통일 이후 증가한 극우청년 세력에 대해서도 그 원인은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민족적인 것을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금기시함으로써 형성된 잘못된 민족적 정체성에 있다고 보았다. Vgl. Walser: Deutsche Sorgen II.. In: ders.: Deutsche Sorgen, S. 458.

167) 분단된 독일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이 소설의 위대함이 있다는 해석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Vgl. Braungart: “‘Ich habe nicht das Gefühl, daß ich mich bewegt hätte.’, S. 113.

이 전쟁, 특히 분단이라는 집단의 역사적 상황에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민족적 차원에서의 결핍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결핍을 교정하고 매워줄 유일한 해결책인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¹⁶⁸⁾

168) 정향균: 결핍의 미학, 113쪽 참조. 이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정체성 문제해결의 선행을 강조하는 발저의 인식은 “정치적인 것에 개인적인 것이 뒤따른다 zur Politik kommt da Privates”라는 알프레트의 독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DVVK 117)

결론

『유년시절의 수호』의 주인공 알프레트 도른은 1927년에 태어나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87년에 삶을 마감한다. 그의 고향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13일, 지옥으로 기억되는 공중폭격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그는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지녀야 할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성(性)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 채 어머니를 제외한 어떤 이성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그는 뉘른베르크에서의 유학생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오직 어머니와의 의존관계를 통해 달래고, 이러한 의존관계가 느슨해질 위기에 처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이상징후를 보이는 등 어머니에 대한 강한 집착성향을 보인다. 또한 그는 뉘른베르크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이후 죽기 전까지 서독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어느 집단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그는 고향 드레스덴, 정확히 말하면 1945년 드레스덴 폭격 이전의 유년시절 추억이 담긴 정체성의 근원으로서 고향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 시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집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년시절부터 결핍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 자기 스스로 한 젊은 남성의 경제적·정신적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들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체성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동·서독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으며, 결국 그는 정체성확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작품이 1991년 출판됨과 동시에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역사적 전환기를 대표하는 시대소설로 평가 받은 것은¹⁶⁹⁾ 단지 이 작품이 20

세기 중후반 독일에서 일어난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만 근거하지는 않는다. 이 작품은 나치시대의 유대인 학대, 드레스덴 폭격으로 대표되는 2차 세계대전의 고통, 이어진 독일의 분단과 대립 등 독일 민족이 겪은 현대사가 위와 같이 알프레트 도른이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정체성확립시도를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을 다룬다. 개인정체성과 집단정체성 사이의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민족이라는 집단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발저의 역사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위대한 시대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69)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문학평론가 하게 Volker Hage는 차이트지에 낸 서평에서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독일어로 쓰여진 소설 중에 (이 작품처럼) - 주인공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도 - 독일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이 정도의 관망을 가능하면서 동시에 현실성으로 충만한 소설은 오랫동안 없었다. (1945년) 2월의 드레스덴 공습, 법학의 복습과정, 동독관청의 자의적인 행정, 작센적인 주제, 보상관련 문제, 전후 독일영화 또는 장벽의 건설 등은 단순히 독립적인 것들로 소설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단순히 소설의 배경으로 평가절하되지도 않는다. Es hat lange keinen Roman in deutscher Sprache gegeben, der - ohne seine Figur aus den Augen zu lassen - in diesem Ausmaß Durchblicke auf die historischen und politischen Ereignisse gestattet hat und von Realität durchdrungen ist. Ob das der Februarangriff auf Dresden, das juristische Repetitorium, ob das die Behördenwillkür in der DDR, das sächsische Thema, ob das die Frage der Wiedergutmachung, der deutsche Nachkriegsfilm oder der Bau der Mauer ist: nie macht sich das selbständig, aber ebensowenig wird es zur Folie degradiert.” Volker Hage: Walsers Deutsches Requim. Ohne Musik wäre das Leben ein Irrtum. Die Zeit(9 August 1991).

참 고 문 헌

1. 일차 문헌

Walser, Marti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Frankfurt a.M. 19931.

Ders.: Deutsche Sorgen. Frankfurt a.M. 1997.

2. 이차 문헌

강학숙: 존재와 공간, 하이데거 존재의 토폴로지와 사상의 흐름. 한길사 2011.

고성현: Martin Walser의 『Ein fliehendes Pferd』에 나타난 소시민 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권선형: 기억,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시대소설 - 마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정체성』 고찰.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27집 2005, 121-140쪽.

권선형: 마틴 발저의 『유년시절의 정체성』에 나타난 전후 독일사회의 조망과 통일독일의 미래상. 실린 곳: 한국독어독문학회 제81집 (2002), 130-147쪽.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 연구. 실린 곳: 사회과학연구 제6집 (1999), 557-594쪽.

렐프, 에드워드(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이해. 교육과학사 2010.

박아청: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의 발달이론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실린 곳: 사회과학논총 제26권(2007), 143-163쪽.

볼노브, 오토 프리드리히(오인탁·정혜영 역): 교육의 인간학. 문음사 1988.

신문수: 장소·인간·생태적 삶. 실린 곳: 문학과 환경 제6권(2007), 57-79쪽.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조르쥬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실린 곳: 한국사회학 제45집(2011), 232-256쪽.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실린 곳: 존재론 연구 제16집(2007), 61-97쪽.

전광식: 고향. 문학과 지성사 1999.

정항균: 곁핍의 미학.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0호(2008), 89-117쪽.

정항균: 기억의 도구화에 대한 저항.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 문학 제21집(2003), 517-544쪽.

정항균: “나는 변하지 않았다.”. 실린 곳: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8집(2008), 179-209쪽.

정향균: 마르틴 발저의 『솟구치는 샘 Ein springender Brunnen』에 나타난 “순수한 기억”과 “양심의 자유” 문제.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21집(2003), 175-197쪽.

정향균: 르네모시네의 부활. 뿌리와이파리 2005.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실린 곳: 역사교육 제85집(2003), 159-189쪽.

투안, 이푸(구동희 외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프로이트, 지그문트(박성수·한승완 역):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4.

Anthes-Ploch, Nadja : Die „deutsche Teilung“ im Werk Martin Walsers. In: Gardez! Hochschulschriften. Bd. 3. Mainz 1996, S. 83-113.

Assmann, Aleida : Erinnerungsrä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2006.

Bollnow, Otto Friedrich: Mensch und Raum. Stuttgart 1994.

Braungart, Georg : “Ich habe nicht das Gefühl, daß ich mich bewegt hätte.’ Martin Walsers ‘Wende’ zwischen Heimatkunde und Gesichtsfühl.” In: Walter Erhart u. Dirk Niefanger (Hrsg.): Zwei Wendezeiten. Blicke auf die deutsche Literatur 1945 und 1989. Tübingen 1997, S. 93-114.

Fetz, Gerald A. : Martin Walser. Stuttgart u. Weimar 1997.

Freud, Sigmund : Konstruktionen in der Analyse. In: Anna Freud u.a. (Hrsg.): Gesammelte Werke. Werke aus den Jahren 1932-1939. Bd. 16. Frankfurt a.M. 1950, S. 41-56.

Herder, Johann Gottfried von : Frühe Schriften. 1764-1772. In: Ulrich Gaier (Hrsg.): Deutscher Klassiker. Frankfurt a.M. 1985, S. 695-810.

Meier, Andreas : Martin Walser: Templones Ende. In: Klassische deutsche Kurzgeschichten. Stuttgart 2004, S. 182-192.

Walser, Martin: Über den Leser – soviel man in einem Festzelt darüber sagen soll. In: Wer ist ein Schriftsteller? Aufsätze und Reden. Frankfurt a.M. 1979, S. 94-101.

Ders.: Wer ist ein Schriftsteller?. In: ders.: Wer ist ein Schriftsteller? Aufsätze und Reden, S. 36-46.

Ders.: Wie und wovon handelt die Literatur. In: Wie und wovon handelt die Literatur? Aufsätze und Reden. Frankfurt a.M. 1973, S. 119-138.

Ders.: Wieviel Heimat braucht der Mensch?. In: Helmuth Kiesel u. Frank Barsch (Hrsg.): Ansichten, Einsichten. Aufsätze zur Zeitgeschichte. Werke in zwölf Bänden. Bd. 11. Frankfurt a.M. 1997, S. 249-256.

Ders.: Zum Stand der deutschen Dinge. F.A.Z(5 Dezember 1989)
Kim, Jong-Dae : Beschreibung der Alltäglichkeit. Eine Studie zur

existenzialistischen Schreibweise bei Martin Walser. University of Oulu Finland 2005.

Mathäs, Alexander : Der kalte Kriege in der deutschen Literaturkritik. Der Fall Martin Walser. New York 1992.

Ders.: Copying Kafka's Signature-Martin Walser's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In: The Germanic Review. Bd. 69. (1994), S. 79-91.

Reinhold, Ursula : Figuren, Themen und Erzähle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in ästhetischen, poetologischen und politischen Kontexten. In: Heike Doane u. Gertrud Bauer Pickar (Hrsg.): Leseerfahrungen mit Martin Walser. Neue Beiträge zu seinen Texten. München 1995, S. 196-215.

Skwara, Erich Wolfgang : Ein Parzival-Roman der deutschen Teilung. In: Heike Doane u. Gertrud Bauer Pickar (Hrsg.): Leseerfahrungen mit Martin Walser. Neue Beiträge zu seinen Texten. München 1995, S. 189-195.

Zusammenfassung

Die deutsche Trennung und die Identität des Individuums

Eine Untersuchung von Martin Walsers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Cho, Kwang-Min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ieser Arbeit wird das Problem der Identität, das der Protagonist des Romans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hat, analysiert und versucht, dadurch den Einfluss der deutschen zeitgeschichtlichen Ereignisse auf die Identität des Individuums zu erforschen.

Ab Mitte der 70er Jahren behandelte Martin Walser den Konflikt zwischen der Identität des Individuums, das nach einer unabhängigen Existenz strebt, und dessen Abhängigkeit von d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In den 80er Jahren begann Walser dann die wirklichen Verhältnisse Deutschlands, die durch die ‚deutsche Teilung‘ geprägt

sind, als literarisches Thema zu behandeln. Ins Besondere fasste er den Zweiten Weltkrieg, die Nazivergangenheit, die deutsche Teilung und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als die wichtigsten Faktoren auf, die nicht nur auf Deutschland als eine Nation, sondern auch auf die Identität der Individuen als Angehörige einer Nation Einfluß hatten. Seine Ansicht über die deutsche Geschichte und die Korrelation zwischen nationaler und individueller Identität fanden in seinen Werken literarischen Ausdruck. Walser hat bei verschiedenen Gelegenheiten seine Meinung verlauten lassen, dass die deutsche Teilung ein Zustand sei, der nicht anerkannt werden sollte, weil er ein von den Großmächten, die großes Interesse an ihrer Herrschergewalt über Deutschland hatten, erzwungener Zustand sei. Hierbei galt seine Kritik insbesondere gewissen Linksintellektuellen, die die deutsche Teilung als regelrechte Strafe für den Zweiten Weltkrieg und den Holocaust betrachten und akzeptieren. Des Weiteren vertritt er die Ansicht, dass die verschiedenen politischen, gesellschaftlichen und kulturellen Probleme nur durch die deutsche Einheit behoben werden können, und somit die deutsche Einheit eine unweigerliche Notwendigkeit sei. Darüber hinaus ist Walser der Meinung, dass die Deutschen zwar über den Holocaust reflektieren sollten, aber dabei sowohl als eine kollektive wie auch eine reine moralische Reflexion der Individuen erfolgen müsse. Außerdem ist Walser der Ansicht, dass auch die Deutschen ein Opfer des Zweiten Weltkriegs seie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die als ‚der große deutsche Roman, der Wendezeit‘ anerkannt wird, ist durch die oben erwähnten Tendenzen und geschichtlichen Ansichten Walsers geprägt. Dieser Roman ist von großer Bedeutung, weil er nicht nur die wichtigsten deutschen Themen wie ‚den Zweiten Weltkrieg‘, ‚die

Nazivergangenheit', ‚die deutsche Teilung‘ und ‚die deutsche Einheit‘, sondern auch Walsers persönliche Meinung über diese Themen und darüber hinaus ein individuelles Schicksal, das von den nationalen, 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stark beeinflusst wird, behandelt. In diesem Roman wirken die nationalen Wirklichkeiten wie Krieg und Teilung als entscheidende Widrigkeiten, die nicht nur den Bildungsprozess der Identität behindern, sondern auch verschiedene Abnormalitäten in der Persönlichkeit hervorrufen und letztlich die Anstrengungen des Protagonisten, seine individuelle Identität zu entwickeln, zum Scheitern bringen.

An diesem Beispiel zeigt Walser, dass das Individuum von ontologischen Diskussionen über nationale Bedingungen wie Krieg und Teilung nicht losgelöst sein kann. Daneben gibt er zu erkennen, dass die deutsche Einheit der Zustand sei, indem diese Widrigkeiten überwunden wären.

Die koreanische Republik weist einige Analogien mit der deutschen modernen Geschichte auf. Wie Deutschland ist auch Korea durch Kriegserfahrungen (namentlich dem Koreanischen Krieg) und der daraufhin resultierenden Teilung des Landes gezeichnet. Nach dem Waffenstillstand in 1953 besteh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mmer noch die nun 60 Jahre andauernde militärische Konfrontation gegen Nordkorea. Die Wunden, die durch den Krieg und die darauf folgende Teilung bewirkt wurden, wirken als hauptsächlicher Grund für viele gesellschaftliche Probleme. Unter diesen Bedingungen könnte Walsers Roman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 der das Schicksal eines Individuums behandelt, das von den nationalen, 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stark beeinflusst wird und dadurch Probleme in seiner Identitätsfindung zeigt, und schlussfolgernd die Notwendigkeit der Einheit vor Augen führt, als Bildungsmaterial für

die koreanischen Soldaten genutzt werden, um die Notwendigkeit der ‚koreanischen Einheit‘ zu erkennen.

Schlüsselwörter : Martin Walser, Trennung, Einheit, Identität, Nation, Individuum

Student Number : 2011 - 22791